

Issue Paper

2006. 4.

중동 오일머니 활용 방안

목차

I. 新고유가 시대 정착

II. 중동 오일머니 유입 현황

III. 중동 산유국의 경제발전 전략

IV. 진출 전략

<부록1> 중동경제의 현황 및 특징

<부록2> 개별국가 개황

작성 : 오승구 수석연구원(3780-8031)
ooskk@seri.org
김득갑, 김한수, 전영재, 방태섭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im@seri.org

<Executive Summary>

2000년 이후 중동 산유국은 고유가로 벌어들인 오일머니에 힘입어 경기호황을 거듭하고 있다. 2000~2005년 OPEC이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1조 4,888억 달러에 이르며, 그중 약 1조 달러가 걸프연안 6개국으로 유입되었다. 2002년 유가를 기준으로 할 때 유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2003~2005년 2,556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6년 한해에만 2,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동경제는 상당기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소모적인 소비확대에 오일머니를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장기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머니 활용 전략이 변화한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지도층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은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원유 고갈에 직면한 국가들은 알루미늄 산업 등 제조업과 금융·관광·물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석유산업 내에서도 정제분야 등으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산업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중동 시장은 과거 중동 붐 시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다. 우선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져서 중동 特需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아,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과거 중동 붐 시절에 효자 노릇을 했던 원가경쟁력 위주의 건설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넘쳐나는 오일머니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보다는,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 활용정책 속에서 사업기회를 찾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가별로 시장 규모 및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차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사업분야의 경우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IT·자동차 등 고급 내구재와 중동형 니치 시장을 노려야 한다. 또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유 및 가스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要 約>

I. 新고유가 시대 정착

고유가 장기화

- 2006년 4월 20일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6.87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지속
 - 200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인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6년 2월 1일 이후 사상최고치를 연속 경신
 - 2002년 배럴당 23.88달러에서 2003년 26.80달러,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급등(연평균)
- 고유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新고유가 시대에 진입
 - 2006년도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62달러/배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산유국 정정 불안 고조 시 70달러/배럴을 돌파
 - 향후 2~3년간 국제유가는 현 수준에서 미세한 등락을 거듭할 전망

OPEC 산유국이 가장 큰 수혜

- 고유가의 혜택을 보는 국가는 OPEC 회원국과 非OPEC 산유국 중 석유 수출 국가
 - OPEC 산유국은 원유수출을 주도하는 반면, 非OPEC 산유국은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수요에 충당
 - OPEC 11개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8,903억 배럴로 전 세계 원유 확인매

장량(1조 1,886억 배럴)의 74.9%, 원유생산량은 3,293만 배럴/일로 전세계 원유생산량의 41.1%를 차지

- 非OPEC 산유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982억 배럴로 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의 25.1%, 원유생산량은 4,733만 배럴/일로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58.9%를 차지

□ OPEC 회원국간에도 고유가 수혜 정도에 상당한 차이

- 2004년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이 OPEC의 오일머니 유입액 중 67% 차지¹⁾
-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역시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으나, 정정 불안으로 오일머니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
-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입국으로 전락

□ 따라서 OPEC 회원국, 특히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

II. 중동 오일머니 유입 현황

사상 최대 규모의 오일머니 유입 지속

- 2005년 OPEC의 석유수출액은 4,73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1980년 중동 붐 당시의 석유수출액 2,759억 달러의 1.7배 규모
- 2001~2005년 OPEC으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1조 4,888억 달러 규모
- 연평균 수출액: 1,370억 달러(1990년대)→2,977억 달러(2001~05년)

1) 걸프만에 위치한 6대 산유국의 일일 생산량은 약 2천만 배럴로 전세계 생산량의 1/4을 차지하며, 수출은 약 1500만b/d로 전세계 수입량의 1/3에 해당.

OPEC의 석유수출액 추이

(억 달러)

	198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란	117	214	192	261	343	466
이라크	261	157	126	75	177	234
사우디	1,014	598	638	823	1,062	1,533
UAE	194	224	218	252	381	456
쿠웨이트	189	150	141	190	264	390
카타르	54	70	70	88	117	191
결프연안 6개국 합계	1,829 (66.3) ¹⁾	1,413 (67.3)	1,385 (66.9)	1,689 (67.7)	2,344 (67.2)	3,270 (69.1)
나이지리아	249	172	171	222	323	451
베네수엘라	176	200	203	186	294	377
기타 ²⁾	505	315	313	399	529	633
OPEC 합계	2,759	2,100	2,072	2,496	3,490	4,731

주 1: ()는 결프연안 6대 산유국이 OPEC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 포함

2: 기타는 알제리, 인도네시아, 리비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OPEC, EIA 자료를 참조

□ 결프연안 6대 산유국의 석유수출액은 2005년 3,270억 달러로 2001년 이후 4년 만에 2.3배 증가

- 결프연안 6대 산유국이 OPEC 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6개 산유국 비중 : 66.3%('80년) → 67.3%('01년) → 69.1%('05년)
- 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유입액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이란, 아랍에미리트의 유입액 비중도 각각 12% 수준
- 수출 물량 증감을 배제한 순수 가격 효과는 2004년 685억 달러, 2005년에는 1,687억 달러에 이룸
 - 2002년 유가와 당해 연도 유가 차이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액

- 2006년 걸프연안 6개 산유국으로 유입되는 오일머니 총액은 연간 3,550억 ~3,88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 당분간 국제유가는 62달러/배럴, 수출량은 65억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동일 수준의 오일머니가 계속 유입 전망

걸프연안 6개 산유국의 석유수출액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유가(달러/배럴)	22.84	23.88	26.80	33.74	49.37	55.25
석유수출량(억 배럴)	61.9	57.9	63.0	69.5	66.2	64.7
석유수출액(억 달러)	1,413	1,385	1,689	2,344	3,270	3,574
수출액 증가분 (억 달러)	-269	-28	304	655	926	304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분(억 달러)	-	-	184	685	1,687	2,030

주 1: 2005년은 추정치, 2006년은 전망치

2: 2001~02년의 수출액 감소는 정정불안에 따른 이라크 수출 감소가 주원인

3: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분은 2002년 유가와 당해년도 유가 차이에 따른 증가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OPEC, EIA 등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

- 실질가격 기준으로 본 2006년도 오일머니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0년 수준에 근접
 - 2005년 실질가격 기준 OPEC의 석유수출액은 1980년 5,71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1998년에는 1,207억 달러로 최저치 기록
 - 1998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2.21 달러로 1988년의 10.55 달러 이래로 최저치(두바이유 명목가격 기준)
 - 실질가격 기준 2006년 OPEC의 석유수출액은 5,12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1980년의 89.6% 수준

오일머니가 중동경제 호황을 견인

□ 중동경제는 오일머니 급증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유지

- 유가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이 경제성장의 근간
 - 원유수출 확대 → 재정수입 증대 → 재정지출 확대 → 내수 활성화(소비와 투자 증가) → 경제성장률 상승
- 특히 석유와 가스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2000년대 초반 0%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3년 성장률이 각각 7.7%, 9.7%로 급등
 - 세계 3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카타르는 2003~2004년에 20% 전후의 고성장세를 구가

주요 중동 국가의 경제 성장률 추이

(%)

	2001	2002	2003	2004	2005
이란	3.7	7.5	6.7	5.6	4.8
사우디아라비아	0.5	0.1	7.7	5.2	6.2
쿠웨이트	0.7	0.5	9.7	7.2	4.5
UAE	3.5	2.6	11.9	7.4	6.7
카타르	-	11.1	19.8	20.5	8.8
바레인	4.6	5.2	6.8	5.3	5.9
오만	7.5	2.3	1.9	7.2	1.9

주: 2005년은 전망치

자료 : EIU, Country Report, 각년호

□ 민간 및 정부부문의 소비지출 자제로 투자여력이 확대

- 최근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40%대로 하락
 - 1973년, 1979년 당시에는 소비지출이 각각 75%, 60%를 차지

-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도 흑자 지속
 - 중동국가의 재정수지는 2004년 GDP대비 평균 7.9% 흑자

-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역내 금융시장이 급성장
 - 중동지역의 자본시장지수(SHUAA 지수)²⁾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3.3배 상승

 - GCC(Gulf Cooperation Council)³⁾ 6개국의 주식시장 주가총액은 2004년 말 5,519억 달러

- GCC 6개국의 2004년 경상수지가 9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가 2,598억 달러에 이르는 등 대외부문도 호조
 - 對중동 외국인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
 - GCC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1년 23.1억 달러에서 2004년 42.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 중동 국가의 해외투자도 급증
 - 2000~2004년 중동의 해외투자는 2,018억 달러 수준
 - 과거의 저축 중심에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 행태로 변화

- 향후에도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당분간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며, 중동 산유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이란의 핵문제가 갈등을 촉발하고 이라크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동지역 경제성장은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

2) UAE의 투자회사인 SHUAA가 개발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의 종합주가지수

3)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UAE, 카타르, 오만 등 걸프만 6개국의 협력체

Ⅲ. 중동 산유국의 경제발전 전략

'장기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오일머니 활용 전략이 과거와는 달리 미래를 위한 투자 위주로 전환
 - 구정치지도자는 오일머니를 소모적인 소비확대에 치중했으나, 신지도층은 소비보다는 재정수지 건전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활동에 집중
- 경제개발 계획의 중점과제는 석유 의존도 감소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경제개발전략의 3대 기본 방향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및 정착, 사회간접 자본과 인적자원의 확충 및 고도화, 산업구조의 다각화

1.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및 정착

- 폐쇄 경제를 개방 경제로 전환
 -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을 추구
 - 비관세장벽 제거,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관련 규정의 국제 규범화 등
 -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중시해 FTA 체결도 추진
 - GCC는 EU, 중국, 일본,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과 FTA 추진중
 - 산업구조 다각화, 세계경제 진입 가속화, 높은 인구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공공부문 주도 경제를 민간부문 주도 경제로 전환
 -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

- 민영화와 함께 재정건전화에도 주력
 - 현대적 조세제도 도입 및 조세행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추구
 - 동시에 공정거래 및 건전한 시장 육성에도 주력하여 세원확대를 유도

□ GCC는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 공동체를 지향

- 2007년 단일시장(Single Market)형성, 2010년 단일통화 도입을 목표
- 현재 GCC 국가 간의 경제통합은 관세동맹(Customs Union) 단계
 - 회원국 간 관세 철폐,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5% 단일관세를 적용 등

2.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자원의 확충

□ 고유가로 확대된 정부재정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한 중동국가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통신,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 IT, 석유화학산업은 물론, 유통, 관광, 금융 등 소프트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 정책도 강화

□ IT 및 정보통신산업 인프라 투자가 급진전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중동 각국 정부는 정보화사회 건설에 주력
 - 사우디 정부는 향후 5년간 21,000개의 학교에 무상으로 PC를 공급하는 ‘Crown Prince Abdullah’s Wattani 프로젝트’(5억 달러 규모)를 추진
- GCC 6개국은 향후 3년간 2,000억 달러를 IT 등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 중동 IT시장은 연평균 15%의 고성장이 예상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

- 자국민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교육, 기술 및 직업 훈련 확대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해 고급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
 - 카타르는 코넬大 및 카네기멜론大 분교, 두바이는 미들섹스大 등 영국계 및 호주계 분교 6개교 유치

3. 산업다각화 추진

□ 중동 국가는 석유고갈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추진

- 2010년이면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바이, 바레인 등은 향후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 발굴에 적극적
 -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세계 알루미늄 제조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
- 두바이와 카타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알루미늄, 비료, 철강)을 육성

□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유채굴 이외의 석유관련 사업이나 천연가스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추진

- 원유채굴에서 원유정제산업으로 고도화
 - 쿠웨이트는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6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스 부문에 2024년까지 1,300억 달러를 투자
 - 카타르와 오만은 천연가스 개발 및 액화사업에 역량을 집중
- 석유 및 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6년 석유화학 분야에 2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이들 분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추진 중

□ 최근 들어 금융산업, 관광, 물류 및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에 주력

- 두바이, 바레인, 카타르 등은 국제금융센터 설립 또는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중동의 금융허브를 지향하며 경쟁
 - 바레인은 이슬람 बैं킹에 특화하는 반면, 두바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국제금융 허브를 지향
- 걸프만 국가 대부분이 관광산업을 강화하면서 호텔 등 숙박업, 요식업 등이 급속히 발전
- 자유무역지대내 물류기지를 확충하고 대형 쇼핑몰을 건설

IV. 진출 전략

국가 차원에서 제2의 중동 붐은 期待難

- 오일머니의 영향력이 과거 중동 붐 시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저하
 - 2002년 이후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980년 중동 붐 당시보다 크지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영향력은 축소
 - 1980년 당시 오일머니 규모는 한국 GDP의 4.3배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명목기준)
- 한국기업의 중동시장 공략도 만만치 않은 실정으로 신중한 사업전개가 필요
 - 중동 산유국은 오일머니를 전략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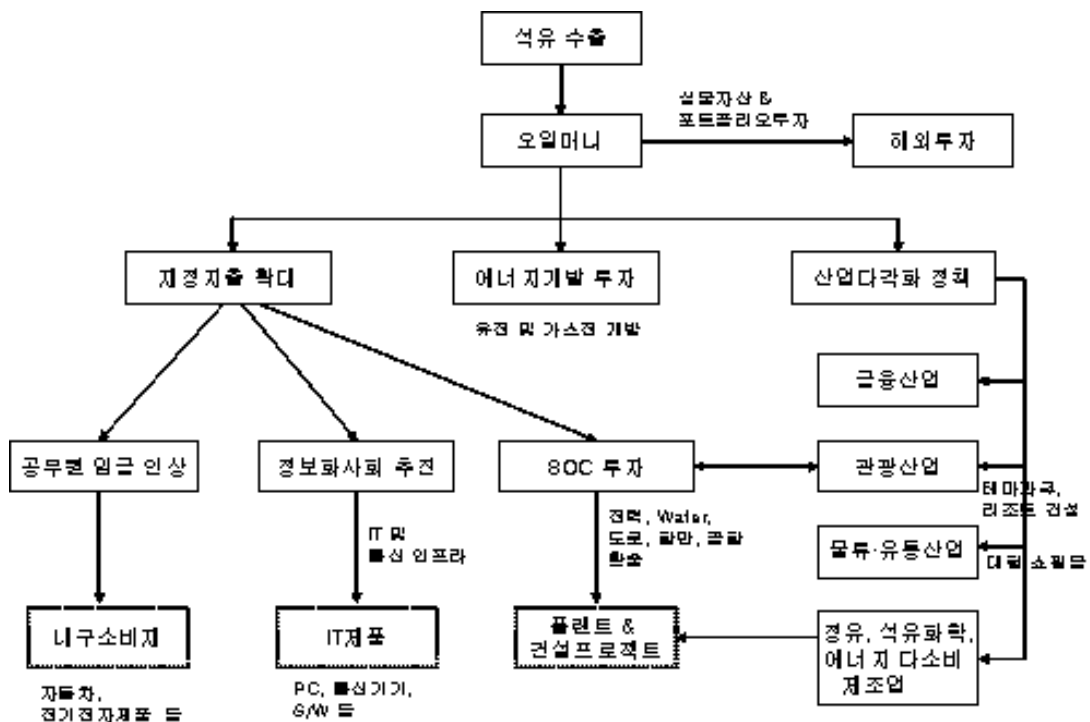
- 한국기업은 원가 경쟁력에 의존하는 사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
 - 단순 건설공사에서는 이미 중국, 인도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5년 내에 중국, 인도에 따라 잡힐 가능성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사업기회가 존재

□ 오일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형성

-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중동시장에는 내구소비재와 자본재, 대형 건설프로젝트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
- 오일머니를 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 구입이나 개발사업 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등에 활용

오일머니와 중동시장의 신규 사업기회



□ 중동시장은 한국기업에게 '제2의 중동 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음

- 중동 산유국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플랜트·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IT제품 등을 위시한 내구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중동의 경제발전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

□ 한국기업이 가진 '복합력'을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

- 다양한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그룹의 복합력을 기반으로 Package형 접근을 시도
 - 제조기술,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경영노하우,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특히 IT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가능

□ 산업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독자마케팅이나 제휴 등 진출방식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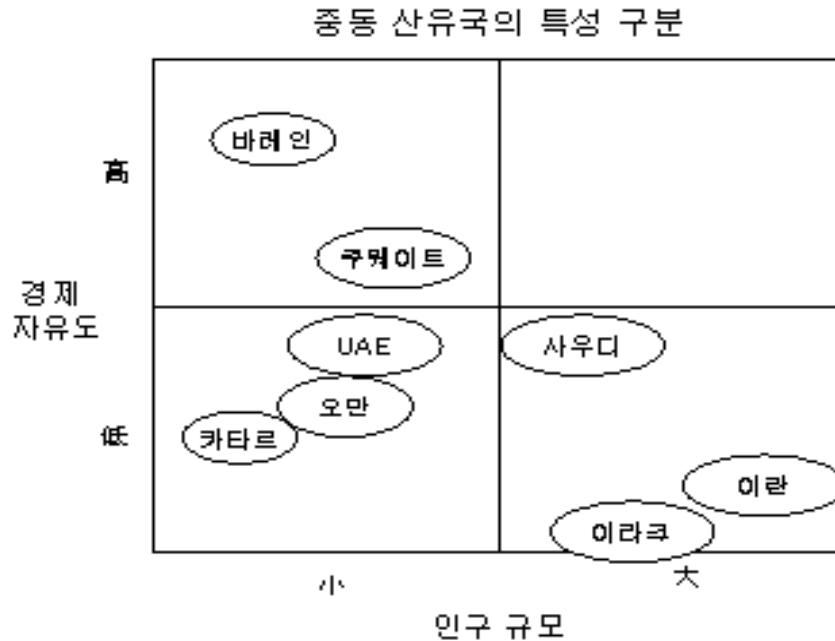
중동시장에서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해당 분야	주요 경쟁국	경쟁력 수준
가전제품	AV제품	일본, 중국, 동남아	◎
	백색가전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
정보통신 제품	PC, 랩톱 등	미국, 일본, 대만	○
	휴대폰	유럽, 미국	◎
S/W	비즈니스 솔루션	미국, 유럽	×
	인터넷게임	일본	◎
자본재	철강	유럽, 일본, 중국, 인도	◎
	기계류	유럽, 일본	◎
자동차	승용차	일본, 유럽, 미국	○
에너지개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미국, 유럽, 일본	×
건설	단순 토목공사	중국, 인도	×
	첨단공법 토목공사	유럽, 미국	○
	초고층빌딩	유럽	○
플랜트 엔지니어링	정제	미국, 유럽	×
	석유화학	유럽, 미국, 일본	○
	발전 및 담수화	유럽, 미국	◎

주 : ◎; 경쟁력 강함, ○; 경쟁력 보통, ×; 경쟁력 약함

국가별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

□ 시장규모⁴⁾와 경제자유도⁵⁾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 규모가 큰 반면 경제자유도가 낮으므로 에너지자원 개발이나 내구소비재 위주의 수출전략이 바람직함
- 바레인과 UAE(두바이)는 시장규모가 작은 반면 경제자유도가 비교적 높으며, 동시에 중동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 금융, 유통 분야의 현지투자가 필요
-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은 시장규모가 작고 경제자유도도 낮지만,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을 강화

4) 이란(6,900만명), 이라크(2,9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2,600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인구 500만 이하의 소국

5)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도(2006년, 157개국 대상)는 바레인(25위), 쿠웨이트(50위), 사우디아라비아(62위), UAE(65위), 오만(74위), 카타르(78위), 이란(156위)의 순이며 이라크는 평가에서 제외(The Heritage Foundation, "2006 Index of Economic Freedom", 2006)

국가 차원에서 경협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對중동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
 - 對중동 통상 확대를 위해 GCC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서두를 필요
 - 특히 중동의 허브국가인 UAE와의 FTA 체결이 급선무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중동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채널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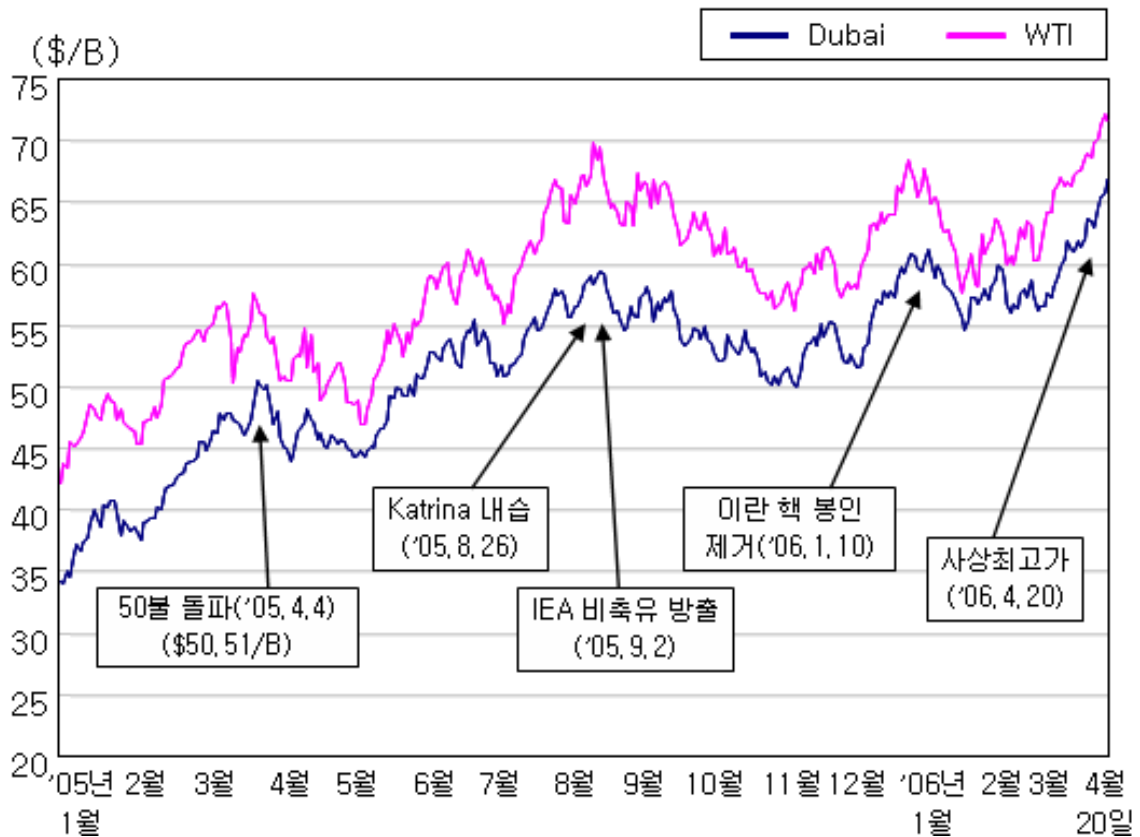
 - 프로젝트발주 등 현지 사업정보를 입수하려면 현지 인맥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
 - 유력한 왕족 일가는 물론 정책 입안자와 대표기업(flagship company)의 경영진들과의 인적관계 구축에 주력

I. 新고유가 시대 정착

국제유가 고공행진 지속

- 2006년 들어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전반적인 강세 기조 지속
 - 2006년 4월 20일 현재 두바이유는 66.87달러/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41.65% 상승 (2005년 평균유가 49.37달러/배럴), 또다시 사상최고치 경신
 - 2006년 2월 1일 61.1달러/배럴 이후 안정되다 급등세로 재진입
- 2005년 12월 이후 이란 핵개발 문제, 나이지리아 테러 단체의 원유생산 시설 공격 등 산유국의 정정 불안이 유가급등을 촉발

국제유가 추이(2005.1~2006.4.20)



자료: www.petronet.co.kr

- 2006년도 연평균 국제유가는 62 달러/배럴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산유국 정정 불안 고조 시 70달러/배럴을 돌파할 가능성
 - 석유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능력 증가는 제한적
 - 2006년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60만b/d(1.9%) 증가할 전망⁶⁾
 - 최근 전 세계 석유 잉여공급능력은 100~150만b/d 수준에 불과하며, 단기간 내에 공급이 증가하기는 어려움
 - 핵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고조되어 이란의 석유수출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국제석유시장에 큰 충격 발생
 - 이란의 석유생산량은 388만 b/d로 OPEC국가⁷⁾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차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⁸⁾
 -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기타 산유국에서의 공급차질 우려도 지속
 - 나이지리아 니제르 삼각주 지역의 소요 및 미-베네수엘라 간의 갈등

2006년도 국제유가 전망

시나리오	연평균(\$/bl)	단기급등(\$/bl)	주요 전제
유가 상승	60~65	65~70	- 타이트한 수급상황 지속 - 이란 핵문제 장기화
유가 급등	65~70	90~95	- 이란이 공급물량 축소(100만b/d↓) - 자연재해 등으로 대규모 공급차질 - 투기자금 유입 증대
유가 하락	45~50	60~65	- 이란 핵문제 조기 타결 - 수요 증가세 감소 - 투기자금 대거 이탈

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인 상황은 제외함

6) 특히 2005년 중 순감소세를 보였던 미국의 석유수요가 2006년에는 35만b/d 증가할 전망(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2006. 2)

7) 석유수출국기구로 총 11개국(알제리,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베네수엘라)으로 구성

8) 걸프만에 위치한 6대 산유국(사우디, 이란,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의 수출물량은 걸프만 입구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음.

新高유가 시대 정착

- 수급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고유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新高유가 시대에 진입
 - 원유생산능력 제한과 소비국의 석유확보 경쟁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고가격 지속
 - 과거의 고유가는 정치적 요인으로 유가가 단기 폭등 양상을 보임
 - 저유가시대(1986~1999년)의 투자부족으로 석유산업의 상하류 부문⁹⁾ 모두 병목현상에 직면
 - 1979년에서 2005년까지 석유 정제능력 증가분은 500만b/d에 불과¹⁰⁾
 - 반면 전통적 석유소비 대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석유수요가 계속 증가
 - 특히 연료의 대체가 어려운 수송용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¹¹⁾
- OPEC이 고유가정책으로 선회한 것도 고유가 지속을 뒷받침
 - 2004~2005년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 및 선진국 경제에의 영향이 미미하자 고유가 유지 가능성을 자각
 - OPEC은 지나친 고유가가 석유소비국의 수요 감소 및 대체에너지 개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2000년 3월 22~28달러/배럴의 유가 밴드제를 도입해 적정유가의 유지를 선호
 - 2005년 1월 30일 유가 밴드제를 중단하고 유가 밴드 인상을 추진 중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잉여생산능력을 무기로 OPEC은 결속력을 강화
 - 현재 OPEC의 잉여생산능력은 100만 배럴/일 수준이며,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

9) 석유산업은 석유 탐사·채굴·생산이 이루어지는 上流(upstream)부문과 수송·정제·판매의 下流(downstream) 부문으로 구성

10) 1979~2005년 동안 세계 석유수요는 2천만b/d(6,400만b/d→8,400만b/d) 증가한 반면 정제능력은 500만b/d(8,000만b/d→8,500만b/d) 증가하는데 그침.

11)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0년 2천만대에서 2020년에는 1억 4천만대로 증가할 전망

- 저유가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산협력의 유지가 회원국의 수익확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감

□ OPEC 국가의 경제 상황도 고유가정책을 초래

- 인구증가 및 실업확대에 따른 사회관련 비용 급증, 인프라 정비, 테러방지 등 안보관련 지출 급증에 따라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태
- 석유결제통화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퇴를 보전하려는 의도도 작용

□ 향후 2~3년간 국제유가는 현 수준에서 미세한 등락을 거듭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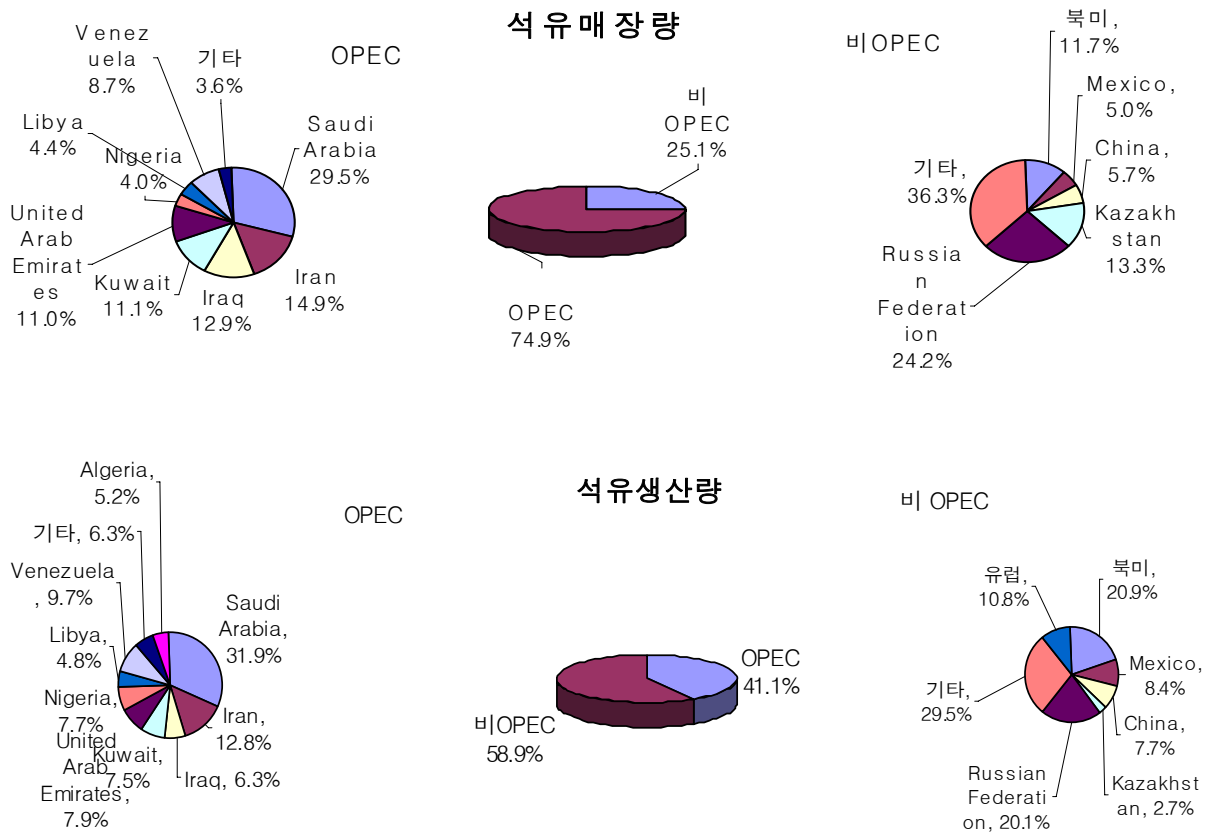
新高유가 시대의 특징

	고유가 시대 (1973~1986)	저유가 시대 (1986~1999)	新高유가 시대 (2000년 이후)
유가 특징	단기 폭등후 안정	저유가 지속	장기간 상승
수요증가세	수요폭증 (연평균 5.3%)	수요둔화 (연평균 0.8%)	수요증대 (연평균 2.5%)
공급능력	지속적으로 확대	잉여생산능력 충분	잉여생산능력 부족
투자	적극적인 투자	투자 부진	투자회복 불투명
시장 주도권	석유메이저 및 OPEC	석유소비국	소비국과 공급자간 주도권 경쟁
OPEC 시장지배력	강화	약화	재강화
세계경제에의 영향	급격한 침체 야기	긍정적으로 작용	만성적 불안요인

OPEC 산유국이 가장 큰 수혜

- 고유가의 혜택을 보는 국가는 OPEC 회원국과 非OPEC 산유국 중 석유 수출 국가

- OPEC 11개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8,903억 배럴로 전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1조 1,886억 배럴)의 74.9%, 원유생산량은 3,293만 배럴/일로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41.1%를 차지하여 OPEC 산유국이 고유가에 따른 가장 큰 수혜국
- 非OPEC 산유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982억 배럴로 전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의 25.1%, 원유생산량은 4,733만 배럴/일로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58.9%를 차지
- 향후 OPEC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



자료: BP

□ OPEC 회원국간에도 고유가 수혜 정도에 상당한 차이

-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이 OPEC의 오일머니 유입액 중 67%를 차지¹²⁾
 - 이라크는 정세불안으로 원유생산 및 수출이 제한적인 실정이며, 알제리와 리비아의 오일머니 유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역시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으나, 정정 불안으로 인해 그 변동성이 심함
-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입국으로 전략한 실정

□ 非OPEC 산유국의 경우 러시아, CIS 등 일부 석유수출 국가가 고유가의 수혜를 입고 있음

- 러시아와 CIS는 對유럽 및 아시아 수출증가로 오일머니 유입이 급증해 고성장세에 진입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아메리카 대륙의 산유국은 대부분 자국의 원유 수요를 충당
- 영국 및 노르웨이 등 유럽 산유국은 자국 및 유럽내 원유수요를 충당
 -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산유국은 원유수입 국가
 -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원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원유 수입수요를 주도
-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일부 산유국은 자국 및 일부 주변국의 원유 수요를 충당

12) 걸프만에 위치한 6대 산유국의 일일 생산량은 약 2천만 배럴로 전세계 생산량의 1/4을 차지하며, 수출은 약 1500만b/d로 전세계 수입량의 1/3에 해당.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PEC 회원국, 특히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함
 - 이란은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나, 중동내 가장 큰 시장이며, 에너지 대국으로 중요한 국가
 - 원유매장량 1,325억 배럴(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11.1%), 생산량 393만 배럴/일
 -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5.3%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가스보유국
 - 이라크도 중요한 시장이나, 정세불안이 장기간 지속되고 진출리스크가 매우 높아 연구대상에서 제외
 - 원유매장량 1,115억 배럴(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9.4%)

II. 중동 오일머니 유입 현황

사상 최대 규모의 오일머니 유입 지속

- 2005년 OPEC의 석유수출액은 4,73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1980년 중동 붐 당시의 석유수출액 2,759억 달러의 1.7배 규모
 - 2001~2005년 OPEC으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1조 4,888억 달러 규모
 - 연평균 수출액: 1,370억 달러(1990년대)→2,977억 달러(2001~05년)

OPEC의 석유수출액 추이

(억 달러)

	198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란	117	214	192	261	343	466
이라크	261	157	126	75	177	234
사우디	1,014	598	638	823	1,062	1,533
UAE	194	224	218	252	381	456
쿠웨이트	189	150	141	190	264	390
카타르	54	70	70	88	117	191
걸프연안 6개국 합계	1,829 (66.3) ¹⁾	1,413 (67.3)	1,385 (66.9)	1,689 (67.7)	2,344 (67.2)	3,270 (69.1)
나이지리아	249	172	171	222	323	451
베네주엘라	176	200	203	186	294	377
기타 ²⁾	505	315	313	399	529	633
OPEC 합계	2,759	2,100	2,072	2,496	3,490	4,731

주 1: ()는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이 OPEC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 포함

2: 기타는 알제리, 인도네시아, 리비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OPEC, EIA 자료를 참조

-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의 석유수출액은 2005년 3,270억 달러로 2001년 이후 4년 만에 2.3배 증가
 - 걸프연안 6대 산유국이 OPEC 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6개 산유국 비중 : 66.3%('80년) → 67.3%('01년) → 69.1%('05년)
 - 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유입액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이란, 아랍에미리트의 유입액 비중도 각각 12% 수준

- 2002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오일머니 규모 확대의 주원인
 - 국제유가(두바이유, 연평균)는 2002년 연평균 배럴당 23.88달러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급등
 - 유가 상승의 주요인은 중국 및 개도국의 원유 수요 증가
 - 2004년 중국의 원유수요는 약 16% 증가하여 세계원유 수요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최고치인 3.4%를 기록
 - 석유수출량은 2002년 57.9억 배럴에서 2004년 69.5억 배럴로 급증한 후, 2005년 66.2억 배럴로 감소
 - 수출 물량 증감을 배제한 순수 가격 효과는 2004년 685억 달러, 2005년에는 1,687억 달러에 이름
 - 2002년 유가와 당해 연도 유가 차이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액

- 2006년 걸프연안 6개 산유국으로 유입되는 오일머니 총액은 연간 3,550억 ~3,88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 당분간 국제유가는 55~60달러/배럴, 수출량은 65억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동일 수준의 오일머니가 계속 유입될 전망

걸프연안 6개 산유국의 석유수출액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유가(달러/배럴)	22.84	23.88	26.80	33.74	49.37	55.25
석유수출량(억 배럴)	61.9	57.9	63.0	69.5	66.2	64.7
석유수출액(억 달러)	1,413	1,385	1,689	2,344	3,270	3,574
수출액 증가분 (억 달러)	-269	-28	304	655	926	304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분(억 달러)	-	-	184	685	1,687	2,030

주 1: 2005년은 추정치, 2006년은 전망치

2: 2001~02년의 수출액 감소는 정정불안에 따른 이라크 수출 감소가 주원인

3: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분은 2002년 유가와 당해년도 유가 차이에 따른 증가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OPEC, EIA 등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

실질가격 기준으로 1980년 중동 붐 시기에 근접

□ 실질가격 기준으로 본 2006년도 오일머니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0년 수준에 근접

- 2005년 실질가격 기준 OPEC의 석유수출액은 1980년 5,71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1998년에는 1,207억 달러로 최저치 기록
 - 1998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2.21 달러로 1988년의 10.55 달러 이래 최저치(두바이유 명목가격 기준)
- 실질가격 기준 2006년 OPEC의 석유수출액은 5,12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1980년의 89.6% 수준
 - 걸프연안 6개국의 경우 3,511억 달러로 1980년의 91.5% 수준

OPEC 주요 회원국의 석유수출액 추이

(억달러, 2005년 실질가격 기준)

	1980	1998	2005	2006
이란	268	112	466	492
이라크	553	77	234	245
사우디아라비아	2,136	369	1,533	1,591
UAE	385	115	456	521
쿠웨이트	384	91	390	433
카타르	110	39	191	229
결프연안 6개 산유국	3,836	803	3,270	3,511
OPEC 합계	5,718	1,207	4,731	5,125

주: 2005년 수치는 추정치, 2006년 수치는 전망치(기준유가는 OPEC 바스켓 평균 55.25\$/bl)
 자료: EIA, "OPEC Revenues Fact Sheet", 2006.1, petronet.co.kr에서 재인용

오일머니가 중동경제 호황을 견인

□ 중동경제는 오일머니 급증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유지

- 유가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이 경제성장의 근간
 - 원유수출 확대 → 재정수입 증대 → 재정지출 확대 → 내수 활성화(소비와 투자 증가) → 경제성장률 상승
- 특히 석유와 가스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2000년대 초반 0%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3년 성장률이 각각 7.7%, 9.7%로 급등
 - 세계 3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카타르는 2003~2004년에 20% 전후의 고성장세를 구가
-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주도하며 중동의 성장모델로 부상

주요 중동 국가의 경제 성장률 추이

(%)

	2001	2002	2003	2004	2005
이란	3.7	7.5	6.7	5.6	4.8
사우디아라비아	0.5	0.1	7.7	5.2	6.2
쿠웨이트	0.7	0.5	9.7	7.2	4.5
UAE	3.5	2.6	11.9	7.4	6.7
카타르	-	11.1	19.8	20.5	8.8
바레인	4.6	5.2	6.8	5.3	5.9
오만	7.5	2.3	1.9	7.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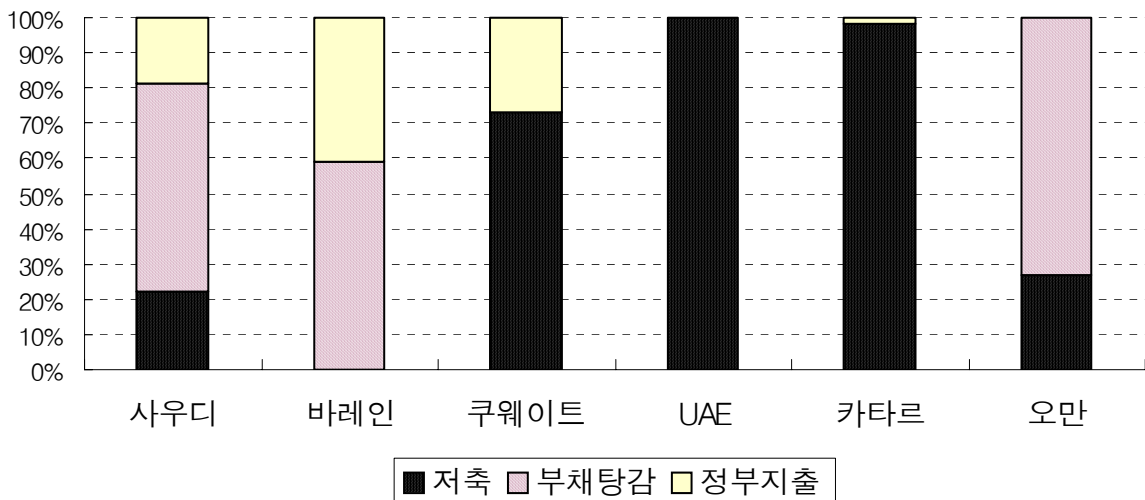
주: 2005년은 전망치

자료 : EIU, Country Report, 각년호

□ 민간 및 정부부문의 소비지출 자제로 투자여력이 확대

- 최근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40%대로 하락
 - 1973년, 1979년 당시에는 소비지출이 각각 75%, 60%를 차지
- 중동 산유국의 저축률은 원유수입국의 저축률 보다 높은 수준
 -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저축률은 GDP 대비 40%를 상회

오일머니의 활용, 2003~2005 (% , 각 부문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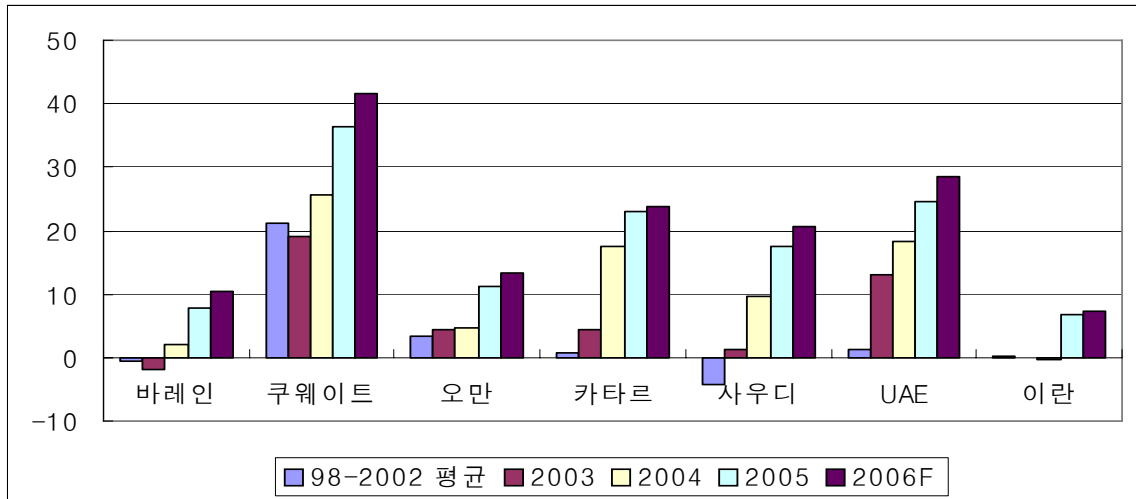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5

□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도 흑자 지속

- 중동국가의 재정수지는 2004년 GDP대비 평균 7.9%의 흑자
- 1990년대에는 평균 3.5%의 적자를 기록

주요 중동국가의 중앙정부 재정수지 비중 (GDP 대비 %)



자료 : IMF

□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역내 금융시장이 급성장

- 중동지역의 자본시장지수(SHUAA 지수)¹³⁾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3.3배 상승
- GCC(Gulf Cooperation Council)¹⁴⁾ 6개국의 주식시장 주가총액은 2004년 말 5,519억 달러

□ GCC 6개국의 2004년 경상수지가 9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가 2,598억 달러에 이르는 등 대외부문도 양호

- 특히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005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0%

13) UAE의 투자회사인 SHUAA가 개발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의 종합주가지수

14)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UAE, 카타르, 오만 등 6개국의 협력체

- 외환보유고는 2000년 GDP 대비 10.5%에서 2004년말 23%로 증가

□ 對중동 외국인 투자 및 중동국가의 해외투자가 활성화

- 對중동 외국인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
 - GCC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1년 23.1억 달러에서 2004년 42.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 중동 국가들의 해외투자도 급증
 - 2000~2004년 중동의 해외투자는 2,018억 달러 수준
 - 과거의 저축 중심에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 행태로 변화

□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당분간 고수준을 유지, 중동 산유국의 고성장을 뒷받침
- 그러나 경제적 자유도와 개방화 정도, 정치체제의 민주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따라 각국별로 경제 성장 수준은 차별화
- 이란의 핵문제가 갈등을 촉발하고 이라크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동지역 경제성장은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

Ⅲ. 중동 산유국의 경제발전 전략

1. 국가 발전전략의 변화

젊은 지도자들이 변화를 주도

- 90년대까지 중동지역의 경제개혁이나 경제개발 계획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음
 - 70, 80년대 고유가 시절 중동의 정치지도자는 경제성장세에 안주해 경제 개혁에 무관심
 - 80년대 중반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동국가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재정 악화, 정책의지 미약,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사장
- 2000년대 들어 중동 정치지도자의 의식이 크게 개선되어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측면에서 과거와는 큰 차이
 - 2000년대 이후 구세대 정치지도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층이 전면부상¹⁵⁾
 - 특히 바레인, 두바이, 카타르와 같이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 중인 국가의 지도자들은 영국에서 조기 교육을 받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물
 - 선진 교육을 받은 젊은 지도층이 국가발전 전략을 진두지휘
 - 기존의 경제구조로는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 왕가의 세대교체에 따른 젊은 지도층의 리더십 경쟁도 국가전략 실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15) 현 국왕의 즉위연도는 바레인(2002년), 카타르(1995년), UAE-두바이(2006), UAE-아부다비(2004) 등이며 이들은 모두 50대의 젊은 지도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각각 2006년, 2005년에 현 국왕이 즉위 하였으나 형제간 왕위 계승으로 세대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
 - 젊은 지도층은 선진국의 인력을 활용해 시장경제체제 도입 및 정착을 시도(바레인의 경우 맥킨지와 함께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산업 이외의 국부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부를 배분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
 - 정권의 도덕성 상실로 회교원리주의 정당이나 단체의 왕정에 대한 개혁 요구가 급증하고 이슬람 내부의 강온파간 권력 다툼이 격화
 - 특히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불만세력은 회교원리주의 집단을 중심으로 응집
- 중동내 지역분쟁은 중동국가에 손해라는 인식을 공유한 젊은 지도층은 아랍인들의 협력단결을 추구하며 공존공영의 가치를 제창하는 등 역내 협력을 강화
- 최근 몇 년간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은 이들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뒷받침

<과거 경제정책의 문제점>

- ▷ 70, 80년대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에도 불구하고 중동국가는 재정수지 적자 악화, 고실업 등으로 국민경제가 취약
 - 70년대의 고유가시기에 중동국가는 왕정 유지 및 정치적 자유 유보를 위해 국민의 복지후생 증대에 주력
 - 80년대 저유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실업문제가 급격히 악화
 - 80년대 말 총외채가 GDP의 100%, 상환액이 외화소득의 2/3를 초과하면서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
- ▷ 90년대에는 중동지역 불안이 가중되면서 군사비 지출이 급증해 재정악화가속
 - 90년 걸프전 이후 전쟁복구비 가중과 함께 국방비 지출 급증(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공공지출의 27%를 차지)
 -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국내 저축률 저하, 고인플레이, 정부 부채와 외채 증가, 민간투자 구축 등 문제가 초래

'장기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오일머니 활용 전략이 과거와는 달리 미래를 위한 투자 위주로 전환
 - 구 정치지도자는 오일머니를 소모적인 소비확대에 치중했으나, 신지도층은 소비보다는 재정수지 건전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활동에 집중
 - 과거의 전략 목표를 수용함과 동시에 실천 가능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
- 경제개발 계획의 중점과제는 석유 의존도 감소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음
 - 경제개발전략의 3대 기본 방향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및 정착,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자원의 확충 및 고도화, 산업구조의 다각화

2.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및 정착에 주력

개방경제체제 가속화

- 폐쇄 경제를 개방 경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
 -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을 추구
 - 현재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 제거,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관련 규정의 국제 규범화 등을 추진
 - 국내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보호해야 할 산업이 거의 없는 점도 개방정책에 유리하게 적용
 -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중시해 FTA 체결도 추진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

GCC 국가들의 WTO 가입 현황

국가	가입 시기
바레인	1995.1
쿠웨이트	1995.1
카타르	1996.1
아랍에미리트	1996.4
오만	2000.11
사우디아라비아	2005.12

□ GCC는 EU, 중국, 일본,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

- EU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등 정치안보를, GCC는 자국의 산업발전을 중시해 2005년 말까지 FTA를 체결키로 합의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
 - 1988년 기본협력협정 체결 → 1990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 2001년 협상 재개 → 2005년 타결을 목표
- 중국과 인도 역시 에너지 확보전략 차원에서 GCC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
 - 중국과는 2004년 7월에 FTA 체결에 합의하고 200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
 - 인도와는 2004년 8월에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FTA 추진을 모색 중
- 터키와는 2005년 5월에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7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06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내부의 경제적 단일성 훼손 및 경제블록으로서 협상력 저하를 지적하며 GCC 공동의 FTA 체결에 부정적 입장

□ 회원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FTA 체결도 추진

- 바레인은 2004년 9월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와 FTA 협상 중
- 오만은 2005년 10월에 미국과 FTA 체결
- 쿠웨이트는 미국,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추진 중

□ GCC 국가간 경제통합 가속화

-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 공동체를 지향
 - 1981년 5월 역내 안보보장 및 정치 군사적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후 1983년부터 역내 자무무역 실현을 추구
 - 2004년 1월 1일부터 역내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5%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관세동맹(Customs Union) 단계로 발전
- 2007년 단일시장(Single Market) 형성, 2010년 단일통화 도입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 통화동맹과 단일통화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GCC 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가 핵심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 견지
- 환율정책(달러 페그제), 금리정책에서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타 정책 분야에서는 불협화음이 지속
- 단일통화 도입을 위해서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수렴조건을 원용해 채택
 -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누적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 외환보유고는 4개월 분 이상의 수입 수요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 GCC국가는 산업구조 다각화, 세계경제 진입 가속화, 높은 인구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기간산업 개발 및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등 제조부문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

- 외국인 투자법 개정, 투자청 설립, 규제완화 정책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
 -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청을 설립
 -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Bahrain, Omani Center for Investment Promotion and Export Development 등
 - 인센티브 제공도 활발
 - 투자사업 관련 토지 소유 허용(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현지 은행의 금융 서비스 제공(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내수 판매권 허용, 과실 송금 보장,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생산원자재 및 설비의 면세 통관 등
 - 외국인 투자업종을 네가티브 시스템(규정된 제한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허용)으로 전환
 -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비석유부문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외국기업을 유치
 - 두바이의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Jebel Ali Free Zone, 1985년 설치), 쿠웨이트의 Shuwaikh만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1999) 등

- 두바이의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과실송금 보장, 규제 및 외환자유화로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
- 바레인도 외국인 100% 투자 및 과실송금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
- 그러나 아직 非교역 장벽 등 투자 진출상의 제약요인이 많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여 선진국의 직접투자는 미진
- 투자저해 요인은 경직된 노동시장, 공공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엄격한 에이전트제도 등
- 또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자국화 전략이 외국인들의 직접적 영업행위를 제한

민영화 정책

- 민영화와 규제철폐 등을 통해 공공부문 주도 경제를 민간부문 주도 경제로 전환
-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와 재정 부담을 야기해온 공기업이 경제성장의 장애물임을 인식
-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계획
 - 쿠웨이트는 정부가 완전 또는 부문 소유하고 있는 우편, 통신, 에너지 생산, 보건 분야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추진
 - 바레인은 국가 소유의 정보통신산업의 민영화 진행
- 민영화와 함께 재정건전화에도 주력
- 보조금 감축과 선별적 보조금제도, 재정지출의 감축보다는 현대적 조세제도의 도입과 조세행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추구

-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GST)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품에 대한 조세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추구

- 공정거래 및 건전한 시장 육성에도 주력하여 세원확대를 유도

□ 대부분 의욕적인 민영화 계획과는 달리 실제 민영화 정도는 부진

- 민간 기업에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실업 문제가 악화된다는 정치권의 우려 때문에 민영화 속도는 지연

- 국민 대다수가 공기업을 통해 일자리와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

- 민영화에 대한 견해 대립, 관료주의적 폐해,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능력 부족, 국내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도 민영화 지체의 주요 요인

□ 1990~2003년 GCC 국가의 민영화관련 정부수입 총액은 55억 1,500만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가 40억 8천만 달러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중동 주요국의 민영화 추이 (1990-200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기업명	민영화 건수	수입
바레인	유통	General Trading and Food processing Company	1	10
이란	제조업 및 서비스	Hakim Pharmaceuticals Company Pars International Sanayeh Felezi Iran	3	19
오만	제조업 및 서비스, 금융, 인프라	Raysut Cement Company Oman Sun Farms Gulf Hotels Companies National Bank of Oman Oman National Insurance Company Oman Cement Company Oman Chlorine Barka Power and Desalinization Project	8	534
카타르	금융	Industries of Qatar Qatar Telecom	2	681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Saudi Telecom	1	4,080
아랍에미리트	제조업 및 서비스	General Industry Corporation	1	190
예멘	제조업 및 서비스	Abyan Rest House Arwa Rest House Crescent Hotel Dar El Hajar Gold Mohr Hotel Rock Hotel	6	1

자료: World Bank, Privatization Database

경제개혁의 장애요인

- 중동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정책의 비효율성,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 외자 도입 부진 등으로 경제개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비교역장벽,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 투자진출상 제약요인이 많은 실정
- 경제활동의 정부 의존적 관행, 경쟁 미흡 및 자기 책임성 결여, 근로 윤리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정권의 정당성 결여) 등으로 개혁이 지연

□ GCC 국가의 거버넌스 지수는 대체로 취약

-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GCC 국가의 민주화지수는 마이너스 수준
-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거버넌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취약

GCC국가의 거버넌스 지수 (2004년)

	민주화	정치 안정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 통제
사우디아라비아	-1.63	-0.60	-0.06	-0.34	0.20	0.15
아랍에미리트	-1.01	0.91	1.20	0.95	0.85	1.23
쿠웨이트	-0.48	0.29	0.55	0.10	0.65	0.71
오만	-0.90	0.76	0.91	0.43	0.98	0.78
바레인	-0.73	0.06	0.76	0.71	0.68	0.76
카타르	-0.79	0.92	0.87	-0.16	0.79	0.55
이란	-1.36	-0.91	-0.66	-1.33	-0.83	-0.59
시리아	-1.72	-0.66	-0.72	-1.21	-0.40	-0.74
예멘	-0.99	-1.48	-0.84	-1.04	-1.11	-0.84

주: 지수가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범위로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의미

자료: 세계은행, Governance Indicators

□ 중동지역의 정세불안도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중동 각국의 경제개혁은 난관에 봉착하고 국내외 경제활동도 크게 악화
- 수년 안에 선진 공업국들의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이 효과를 보여 유가가 급락할 경우에도 큰 문제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성장둔화가 현실화될 경우가 더 큰 문제

3.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자원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 고유가로 확대된 정부재정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
 - 정부지출 규모는 1999년 대비 2004년에 각국별로 약 50~250%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6개국은 향후 3년간 2,000억 달러를 IT 등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주요국별 프로젝트 계획

(단위: 달러)

	프로젝트 분야별 예상 투자규모
사우디	담수발전(160억), 철도(58억), 석유화학(22억)
아랍에미리트	건설(200억), 발전 및 전력수송(44억)
오만	건설(15억), 석유 및 가스플랜트(70억)
이란	건설 및 통신(50억), 발전 및 석유가스플랜트(100억)

자료: KOTIS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속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한 중동국가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통신,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택건설 정책 시행
 - 쿠웨이트는 2004년에 지은 지 25년이 지난 건물을 재건축하도록 규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Jubali 및 Yanbu 등 주요도시에 대한 투자 확대

□ 그러나 이들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방만한 투자는 자제

- 비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로 오일머니의 유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자 신중한 투자 선택
- 이미 중동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져 과거 오일 붐 시기와 같은 대규모의 건설 붐은 기대하기 어려움

인적자원의 확충

□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 추구

- 자국민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교육, 기술 및 직업 훈련 확대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노동력의 교육과 재훈련은 인력개발에 대한 정부지출과 재훈련 정책의 차원에서 고려
 - 오만은 교육 및 노동훈련에 투자를 확대
-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특히 인도는 GCC 역내 외국인 인력의 70%를 차지
-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해 고급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
 - 카타르는 코넬大 및 카네기멜론大 분교, 두바이는 미들섹스大 등 영국계 및 호주계 분교 6개교 유치

4. 산업다각화

국가마다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

- 중동 국가는 석유고갈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추진
 - 2010년이면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바이, 바레인 등은 향후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 발굴에 적극적
 - 인구 및 국토가 좁은 국가는 금융, 관광, 부동산 등 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추진

-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석유정제 산업으로 다각화
 - 원유 채굴에서 원유정제 산업으로 고도화
 - 쿠웨이트는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6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스부문에 2024년까지 1,300억 달러를 투자
 - 카타르와 오만은 천연가스개발 및 액화사업에 역량을 집중

- 장기적인 성장기반(새로운 성장동력) 구축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 감축이 목표
 - 원유부문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비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산업 시설투자를 확대
 - 석유화학부문 투자를 통해 석유산업을 원유채굴에서 석유정제 산업으로 다각화 시도
 - 석유 및 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부문 투자가 중심
 - 이란은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과 비석유산업의 수출산업화
 -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수출지향 정책, 중소기업 설립 촉진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추진
 - 아랍에미리트는 非석유산업부문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하는 등 석유의존 경제 탈피에 성공

- 중동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두바이 알루미늄(세계 생산량의 2%를 생산)은 두바이 GDP의 6%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95%를 수출

- 카타르와 오만은 천연가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액화석유가스)

석유화학산업 투자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각국은 석유화학산업에 투자를 확대

- 석유의존도가 높은 중동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을 오래전부터 염원해 왔으나, 정치적 불안, 저유가 지속 등의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 2000년 이후 유가 상승과 오일머니 유입의 증가로 재원이 마련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진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은 외국인 지분참여를 100%까지 허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추구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6년 석유화학분야에 2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기초산업공사(Sabir)계의 Jubail United Petrochemical이 건설한 에틸렌(Ethylene) 100만톤 크래커가 원료 투입(Feed-in)을 마친 상태

- 이란도 인프라 및 석유화학 분야에 1997~2013년 5단계에 걸쳐 약 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장기 석유화학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

- 이란은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3%를 보유(사우디의 4배 수준)

- 이밖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며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아랍에미리트의 Borouge社는 최근 60만톤급의 에틸렌센터와 45만톤급의 LLDPE/H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고밀도폴리에틸렌)설비를 완공해 공급을 시작
- 2005년 말에는 카타르 Q-Chem (카타르석유와 Chevron Phillips 합작)의 46만톤 PE설비가 가동 시작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산업 현황>

-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기준 세계 3위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대표기업은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
-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화학제품 전체 생산능력을 2001년 3,500만 톤에서 2010년 4,800만톤으로 확대할 예정
 - 현재 BP, Shell, TotalFinaElf 등이 3건의 가스 탐사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진행중
 - ExxonMobil은 Shell, Phillips Petroleum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가스전 개발 및 100만톤급 2기의 에틸렌센터를 건설할 계획
 - 장기적으로 4기의 초대형 에틸렌센터를 건설할 계획

알루미늄 제련산업

- 석유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국가는 非석유관련 제조업을 육성
 - 바레인은 조선수리업, 알루미늄 및 화학제품 등을 기간산업으로 육성
 - UAE와 함께 세계 알루미늄 제조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
 - 두바이와 카타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알루미늄, 비료, 철강)을 육성
- 중동지역 국가는 LNG와 석유를 원료로 하는 담수화 발전설비를 통해 저렴하게 생산된 풍부한 전기와 담수를 이용하여 세계 알루미늄 제조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

- 알루미늄 제련의 필수요소인 전력생산비용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평균 kWh당 0.048센트로 매우 낮은 편
- 중동국가는 2010년까지 현재 생산량보다 연간 180만톤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설비증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7만5000톤 증산 프로젝트를 진행
 - 바레인의 ALBA社도 2010년까지 총 110만 톤 증산을 위한 설비 확장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중동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으로 발돋움

국제 금융허브 구축

- 오일머니의 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동 각국은 금융 중계산업의 부흥을 꾀하고자 국제금융센터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금융센터의 역할을 강화
 - 특히 두바이(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 3개국이 중동경제의 금융허브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 1970년대 이래 전통적으로 중동금융시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던 바레인의 아성에 두바이, 카타르가 도전
- 사우디아라비아에 인접해 있는 바레인은 1970년대 이래 중동지역의 역외 금융부문을 주도
 - 현재 약 50개 이상의 역외금융회사들이 활동 중이며, 2005년 2분기 이들의 금융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상회
 - 바레인은 중동국가 중 금융자유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동 최대의 경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거래를 주도
 - 바레인 섬과 중동대륙(사우디)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1985년 완공되어 이미 바레인은 사우디의 금융담당지역 역할을 수행 중
 - 1980년대의 오일 붐 당시 중동지역의 국제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한 경험

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신임을 받고 있음

- 2009년에는 금융센터, 호텔, 주택,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들어서며 복합금융지역인 'BFH(Bahrain Financial Harbor)'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중동 국제금융 강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전망
- 두바이는 중동 금융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 아래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를 개설하여 바레인의 아성에 도전
- DIFC는 중동지역 역내금융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간격을 메워주고 아프리카, 카스피해, 인도대륙을 커버하는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지향
 - 2004년 7월 금융특구법을 발표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영업면허를 발급해 현재 60개사가 영업
 - 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는 투자자에게는 100% 지분소유 가능, 무제한 외환거래 등의 혜택을 부여
 - बैं킹, 캐피탈마켓, 펀드운용, 재보험, 이슬람금융, 백오피스 등의 금융업무를 허용
- 카타르도 선두주자인 바레인과 두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금융센터 설립에 적극 투자
- 하마드 빈 할리파 카타르 국왕은 “10년 내 두바이와 바레인을 따라잡을 것”이라 공언
 - 2005년 1월에 카타르 금융센터(QFC, Qatar Financial Centre)를 설립하고 5월 이후 면허접수를 시작
 - QFC는 국내 금융수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의 금융자산을 지원할 계획

정보통신산업

- IT 부문이 낙후되어 있는 중동 지역은 오일머니의 유입과 더불어 IT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주력
 - 중동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1.6%에 불과
 - PC 보급률도 1000명당 18대로 세계평균인 78.3대 보다 매우 낮은 수준
 - 낙후된 정보통신 분야는 이들 분야가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
 -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社は 중동지역의 매출이 전체매출의 1%에 불과하나 시장성장률은 동유럽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중동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
 - 디지털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중동 각국 정부는 오일머니의 유입과 더불어 정보화사회 건설에 주력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향후 5년간 21,000개의 학교에 무상으로 PC를 공급하는 'Crown Prince Abdullah's Wattani 프로젝트'(5억 달러 규모)를 추진할 예정
 - GCC 6개국은 IT부문에 향후 3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중동 IT 시장은 연평균 15%의 고성장이 예상¹⁶⁾

물류 및 유통산업

- 최근 들어 물류 및 유통,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주력
 - 걸프만 국가 대부분이 관광산업을 강화하면서 호텔 등 숙박업, 요식업 등이 급속히 발전
 -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 대형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도 경쟁

16) IDC, Worldwide IT Spending 2004-2008 Forecast: The Worldwide Black Book, 2004

- 각국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강 및 의료, 교육 분야 등에도 상당한 투자

IV. 진출 전략

국가 차원에서 제2의 중동 붐은 期待難

- 오일머니의 영향력이 과거 중동 붐 시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저하
 - 2002년 이후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980년 중동 붐 당시보다 크지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영향력은 축소
 - 1980년 당시 오일머니 규모는 한국 GDP의 4.3배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명목기준)

세계·한국경제 대비 오일머니 규모 비교(명목기준)

	과거 중동 붐			최근		
	1978년	1979년	1980년	2002년	2003년	2004년
OPEC 석유수출(A)	135	200	276	207	250	349
세계 GDP (B)	7,702	8,885	10,697	32,477	36,452	40,702
한국 GDP (C)	53	63	64	547	608	680
(A)/(B)	1.8	2.3	2.6	0.6	0.7	0.9
(A)/(C)	254.7	317.5	431.3	37.8	41.1	51.3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4. 4/4;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 한국기업의 중동시장 공략도 만만치 않은 실정으로 신중한 사업전개가 필요
 - 중동 산유국은 오일머니를 전략적으로 관리
 - 중동국가는 오일머니를 물 쓰듯 했던 70~80년대와는 달리 소비지출을 자제하고 저축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고도화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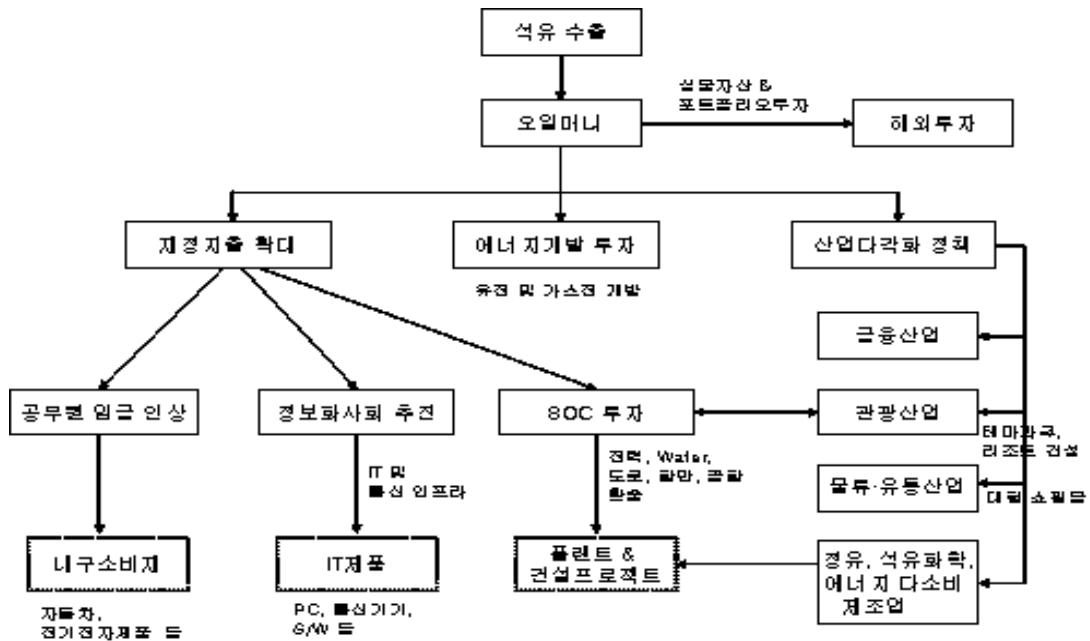
- 한국기업은 원가 경쟁력에 의존하는 사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
 - 중동의 건설시장은 과거 70~80년대의 기초인프라 건설 단계를 넘어 대형화, 기술 집약화 되는 추세
 - 단순 건설공사에서는 이미 중국, 인도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5년 내에 중국, 인도에 따라 잡힐 가능성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사업기회가 존재

□ 오일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형성

-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중동시장에는 내구소비재와 자본재, 대형 건설프로젝트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
- 오일머니를 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 구입이나 개발사업 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등에 활용

오일머니와 중동시장의 신규 사업기회



- 중동시장은 한국기업에게 '제2의 중동 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음
 - 중동 산유국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플랜트·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IT제품 등을 위시한 내구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한국기업은 IT 및 가전제품, 고급 철강, 정밀기계류 등에서 중국 등 후발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
 - 중동의 경제발전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

- 중동시장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강약점을 고려하여 진출전략을 수립
 -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중동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따른 현지 사업기회를 활용

SWOT 분석

<p><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자원,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 ▷내수시장 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소비재, 자본재 수요 증가 ▷산업다각화 정책 ▷건설 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정보화사회 추진으로 IT투자 확대 ▷GCC 경제통합 가속(시장 개방) 	<p><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원유 의존도(경제성장 불안정) ▷사회불안요인 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실업률, 인종 및 민족갈등, 테러발생 가능성 ▷구미 기업들의 중동진출 강화 ▷중국과 인도 약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 우위 분야 ▷중동 유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p><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국가이미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Role Model로 인식 ▷강한 제조업 경쟁력(가전, IT 등 내구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국가들은 제조업 취약 ▷한국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 	<p><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지역은 강한 서구선호사상 ▷현지 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취약 ▷이슬람문화 및 상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에너지 위주의 경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분야 제한(금융, 유통 미흡)

□ 한국기업이 가진 '복합력'을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 가능

- 다양한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그룹의 복합력을 기반으로 Package형 접근을 시도
 - 제조기술,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경영노하우,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특히 IT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가능

□ 산업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출방식을 결정

- 중동 국가의 역점 육성 분야로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지닌 분야는 독자적인 마케팅을 통해 집중 공략
 - 정보통신제품, 가전, 자동차, 게임용 S/W, 자본재 및 일부 플랜트 엔지니어링

중동시장에서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해당 분야	주요 경쟁국	경쟁력 수준
가전제품	AV제품	일본, 중국, 동남아	◎
	백색가전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
정보통신제품	PC, 랩톱 등	미국, 일본, 대만	○
	휴대폰	유럽, 미국	◎
S/W	비즈니스 솔루션	미국, 유럽	×
	인터넷게임	일본	◎
자본재	철강	유럽, 일본, 중국, 인도	◎
	기계류	유럽, 일본	◎
자동차	승용차	일본, 유럽, 미국	○
에너지개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미국, 유럽, 일본	×
건설	단순 토목공사	중국, 인도	×
	첨단공법 토목공사	유럽, 미국	○
	초고층빌딩	유럽	○
플랜트 엔지니어링	정제	미국, 유럽	×
	석유화학	유럽, 미국, 일본	○
	발전 및 담수화	유럽, 미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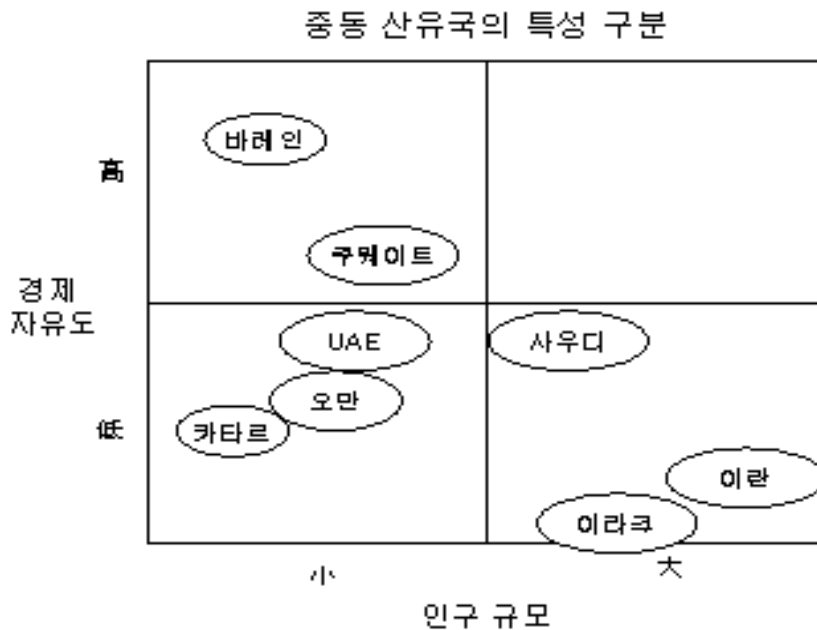
주 : ◎; 경쟁력 강함, ○; 경쟁력 보통, ×; 경쟁력 약함

- 유망 사업분야는 선진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개척
 - 에너지자원 개발, 고부가가치 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

국가별로 진출전략 차별화

□ 중동 산유국은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¹⁷⁾에 따라 다양한 특성 보유

- 이란(6,900만명), 이라크(2,9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2,600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인구 500만 이하의 소국
-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도(2006년, 157개국 대상)는 바레인(25위), 쿠웨이트(50위), 사우디아라비아(62위), UAE(65위), 오만(74위), 카타르(78위), 이란(156위)의 순
 - 이라크는 평가에서 제외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 규모가 큰 반면 경제자유도가 낮으므로 에너지자원 개발이나 내구소비재 위주의 수출전략이 바람직함

17) The Heritage Foundation, "2006 Index of Economic Freedom", 2006

- 바레인과 UAE(두바이)는 시장규모가 작은 반면 경제자유도가 비교적 높으며, 동시에 중동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 금융, 유통 분야의 현지투자가 필요
-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은 시장규모가 작고 경제자유도도 낮지만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을 강화

국가별 특성에 따른 기본 진출방향

국가 특성	해당 국가	기본 진출방향
큰 시장/ 낮은 경제자유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내구소비재 시장 집중 공략, 에너지자원 개발참여
작은 시장/ 높은 경제자유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계기능 활용(물류, 금융, 관광 등)
작은 시장/ 낮은 경제자유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플랜트시장 공략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는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가 다수
 - 3개국은 석유 상류(upstream) 및 하류(downstream)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정제 및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이 유망
-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형 토목건설 사업 기회가 많음
 - 아랍에미리트(두바이)와 카타르는 대규모 해안 개발(water front) 사업, 사우디아라비아는 압둘라왕 산업도시(King Abdullah Industrial City) 건설에 대규모 투자 예정

국가별 주요프로젝트

국가	분야	프로젝트	투자금액	착수시점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 상류 (upstream)	Khurais	80억불	2009년	
		Qatif	30억불	2004년	
		Hawiyah(NGL)	30억불	2008년	
		Abu Hadriya	22억불	2007년	
		Khusaniyah NGLs	19억불	2007년	
	석유 하류 (downstream)	Shaybah	14억불	2008년	
		Ras Tanura	60억불	2010년	
		Jubail	50억불	2012년	
		Yanbu	50억불	2012년	
	토목건설	Riadh	2억불	2006년	
토목건설	King Abdullah Industrial City	266억불	2006년		
쿠웨이트	석유 상류	Project Kuwait-North	85억불	2010년	
		Gathering Centre	7억불	2005년	
	석유 하류	AZ Zour	80억불	2010년	
		Crude Export Fac.	12억불	-	
		New Refinery	50억불	-	
		Olefines II/Aromatics	12억불	-	
	발전전기	AZ Zour North	20억불	-	
		Shuwaikh Desal.	2억불	-	
	토목건설	Subiya Causeway	15억불	-	
		New Campus	30억불	-	
카타르	석유 상류	Qatar GTL	70억불	2009/11년	
		Al-Shaheen	30억불	2009년	
		AKG	15억불	2005년	
		Qatargas II	20억불	2008년	
		Ras Gas	20억불	2005/07년	
	석유 하류	Shaheen	18억불	2010년	
		Ras Laffan	7억불	2008년	
	토목건설	North Beach Development	125억불	-	
		Pearl of the Gulf	25억불	-	
		Friendship Bridge	20억불	-	
UAE	석유 상류	Zakum, UMM	20억불	2008-10년	
		Ba Field-gas injection	10억불	2005년	
		Bu Hasa, Sahil	3억불	2006년	
	석유 하류	Ruwais	162억불	2005년	
		토목건설	Jebel Ali port development	14억불	-
			Dubailand	50억불	-
			Dubai Int'l Airport	10억불	-
Dubai Mall	7.5억불	-			
이란	석유 상류	South Pars P 9-10	19억불	2009년	
		South Pars P 6-8	10억불	2006년	
		Azadegan(South)	30억불	2009년	
	석유 하류	Arak	-	2007년	
		Bandar Abbas	-	2007/10년	
오만	석유 하류	EDC	3억불	2006년	
		VCM	1.5억불	2006년	
		PVC	1.5억불	2006년	

자료 : OPEC 및 KOTRA 자료(중동 오일머니를 잡아라 ④) 등을 취합

국가 차원에서 경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對중동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
 - 對중동 통상 확대를 위해 GCC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서두를 필요
 - 특히 중동의 허브국가인 UAE와의 FTA 체결이 급선무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중동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채널을 구축
 - 산업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국가에게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프로젝트발주 등 현지 사업정보를 입수하려면 현지 인맥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

 - 유력한 왕족 일가는 물론 정책 입안자와 대표기업(flagship company)의 경영진들과의 인적관계 구축에 주력
 - 대표기업으로는 카타르석유(QP), Dubai Holdings, Aramco등

2. 분야별 진출전략

① 플랜트 및 건설시장

-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에 주력
 -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으로 정유, 석유화학설비, 발전소, 담수화 등 중동의 플랜트시장이 급성장
 - 2010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담수화 설비시장 형성 전망

-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강화
 - 2005년 4월 GS-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6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의 라스라판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
-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플랜트 사업을 강화
 - 세계 최고의 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중동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모범 사례

《 두산중공업, 중동 담수화 시장 석권 》

- ▷ 두산중공업은 1978년에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고 담수화 사업에 착수
 - 중동지역의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물 수요 급증 예상
- ▷ 현재 담수 분야의 3대 원천기술을 모두 보유(기술자립도 100%)
- ▷ 중동 지역에서 2004년(11.5억 달러 수주)에 이어 2005년에도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
 - 2004년 : 쿠웨이트 사비야(Subiya), 오만 소하르(Sohar) 등
 - 2005년 : 카타르의 라스라판(2.7억 달러), 사비야 3단계 확장공사 (2.6억 달러), 사우디의 쇼아이바 (8.5억 달러)

□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05년 중동 건설시장 발주 규모는 6,832억 달러에 이룸
 - 쿠웨이트는 주택 건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510억 달러를 투자
 - 사우디아라비아도 266억 달러를 투자하여 '압둘라왕(King Abdullah)' 산업도시를 건설할 예정
- 또한 UAE, 카타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 호텔 건설 등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에 박차

- 다국적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공동입찰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건설프로젝트 수주에 주력
 - 정정 불안이나 환율변동 등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BOO 방식보다는 EPC 방식이 유리¹⁸⁾

《 삼성물산의 버즈 두바이(Burj Dubai) 건설프로젝트 》

- ▷ 삼성물산은 높이 808m의 세계 최고층 빌딩('버즈 두바이')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 160층에 총면적 15만평, 건설비 8.8억 달러
 - 벨기에 베식스(Besix), 현지 아랍텍(Arabtec)과 컨소시엄을 구성

□ 건설수요 확대에 따른 건축자재 수출도 추진

- 국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택보급 확대 등으로 중동 지역에 철강과 시멘트 수요가 폭증
 - 이와 연계한 건축자재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

② 내구소비재 시장

□ 마케팅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을 전개

-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나, 수출은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형 제품에 편중

□ 중국, 인도 등 아시아산 제품과 유럽 고가품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틈새 시장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

- 기술 집약적인 고급제품 개발로 중상류 소비계층을 공략

18) BOO(Build-Own-Operate)방식은 시공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마친 후, 직접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방식은 일명 턴키방식이라 불리우며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

- 산유국의 구매 성향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가품화하는 추세
- 또한 중동 소비자들을 겨냥한 아이디어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 중동시장을 겨냥한 틈새시장 제품 >

- ▷ LG전자는 이슬람 성지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기능을 갖춘 휴대폰인 ‘메카폰’ 개발
- ▷ 삼성전자는 6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트로피컬(tropical)컴프레셔와 사막의 먼지·곰팡이의 제거가 가능한 은나노 필터를 채용한 빌트인 에어컨 출시
- ▷ 다보스(LCD TV 전문업체)는 이슬람 경전 ‘코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내장 ‘코란TV’ 개발

□ 중동의 '정보화사회 정책'에 따라 휴대폰 및 PC 수출을 강화

- 중동의 정보화사회 정책과 높은 인구 증가율로 PC 등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제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각국 정부는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사회 건설에 주력
- 특히 시장 잠재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시장을 공략할 필요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수요확대 여지가 매우 큼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S/W 수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대부분의 이용자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므로 영어로 된 S/W를 아랍어 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시장개척의 관건
- 네트워크와 인터넷 분야에서 아랍어 버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한 고지

- 인터넷게임 S/W 시장은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유망 분야이므로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 대만 Acer의 사우디 PC시장 진출전략 >

- ▷ 세계 5대 PC 메이커 중 하나인 에이서(Acer)는 사우디의 Advanced Electronics社와 Acer 브랜드의 PC생산협정을 체결(2006.1.30)
- 우선 5,87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매년 12만대의 데스크톱 PC를 생산하고, 이후 랩톱 컴퓨터와 LCD모니터 조립생산으로 확대할 계획

③ 원유 및 가스전 개발

□ 중동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 일부 중동 국가들은 석유 상류부문의 투자도 강화
 - 쿠웨이트는 북부유전 개발을 위해 85억 달러,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을 위해 44억 달러를 투자
- 자원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 역할
 -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사업과 오만의 LNG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많은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서비스계약과 더불어 생산물공유계약을 통한 사업 참여에도 주력
 -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보다 생산물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선호¹⁹⁾

19) 서비스계약은 계약기간이 단기간이고 배당수익을 현찰(cash)로 받는 반면, 생산물공유계약은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배당수익을 원유로 받음

3. 중장기 진출전략

해외투자 오일머니 활용

- 중동의 오일머니는 해외투자에 있어 큰 손으로 부상
 -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에 편중되었던 오일머니 투자가 2000년대 들어서 아랍, 아시아, BRICs 등 신흥국가로 다변화
 - 9.11테러가 오일머니의 투자패턴 변화를 야기
 - 투자분야도 다양화
 - 제조업은 물론 유통 등 부동산건설, 물류 인프라, 통신사업,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투자
 -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사업에도 투자 참여
 - 두바이 등 중동 기업들은 정보통신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음
 - Dubai Ports World의 영국 해운사 P&O(미국내 6개 항만 운영권 소유) 인수 추진
- 한국기업은 중동 국가의 해외투자 사업에 공동 참여
 - 중동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로 한국기업은 중동 투자자와 해외프로젝트에 공동 참여
- 중동 오일머니를 국토개발계획에 활용
 -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임
 - 따라서 대형 국가프로젝트의 민자사업에 중동 오일머니를 활용

- 오일머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을 상대로 홍보 활동 강화
 - 전통적인 중동의 오일머니는 장기투자 마인드를 지닌 우호세력으로 인식되는 경향
 - 최근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핫머니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하지만 순수한 중동 오일머니는 구미 선진국의 기관투자자들과는 달리 경영권에 큰 관심 없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추구
 - 중동 오일머니의 국내 유치 활동을 강화
 - 뉴욕, 런던 이외에 중동지역에서도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
 - 중동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하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에서 한국경제와 기업전략 등을 소개하는 IR 실시

중동 연구 인프라 강화

- 중동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
 - 현재 국내에는 4개 대학이 아랍어과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문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전문가 양성에는 한계
 - 사회과학 분야의 중동연구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중동 경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
- 이슬람 자본(Islamic Banking)에 대한 연구 필요
 - 이슬람자본은 화교자본 못지않은 자금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 해외에 있는 이슬람자본 규모는 약 1조 달러
 - 금융 분야의 오일머니 활용 방안을 도출하려면 이슬람 자본(Islamic banking)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전문가 pool제 운영

- 중동 지역전문가 Pool제를 운영하여 국내외 중동지역 전문가의 횡적 연결과 정보교류를 확대

- 현지사무소 설립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워싱턴 소재의 KEI와 같은 중동 지역 현지사무소 설립
 - UN산하 서아시아지역위원회(ESCWA)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연대 강화
 - 이집트 카이로 소재 EFR 활용

<부록1> 중동경제의 현황 및 특징

1. 중동지역의 정의와 정세

중동지역의 범위

- 일반적으로 중동국가는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국가, 이스라엘, 터키 등 총 26개 국가를 지칭
 - IMF는 이스라엘, 터키를 제외한 24개국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지역으로 분류
 - 한국에서는 이슬람권, 중동지역, 아랍지역이란 용어를 혼용
- 이슬람권은 중동지역을 포함하고, 중동지역은 아랍지역을 포함
 - 이슬람권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 중동지역,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포함되며 전세계 인구의 1/5(13억 명)을 차지
 - 아랍지역은 중동의 중심지역으로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지역
 -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 아라비아 반도 국가 등이 포함
- 지리적으로 중동지역은 크게 3지역으로 나뉨
 - 걸프연안 및 아라비아 반도 국가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만 협력회의)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오만)과 예멘, 이란, 이라크
 -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2/3 이상 보유

- 레반트 지역 국가
 - 지중해 동쪽 지역을 의미하며, 시리아, 레바논 이외에 이라크, 요르단을 포함하기도 함
- 마그레브 지역 국가
 - 북서아프리카의 아랍지역을 의미하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모리타니아, 리비아가 포함(1989년 지역공동체 마그레브 연합을 형성)

□ 전략적으로 중동국가는 3개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주요 에너지 공급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중계무역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라크전(2001년) 이전의 중동 정세

□ 중동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중동내 지역 분쟁과 석유자원에 집중

- 서방 선진국은 중동지역을 분할 통치하고 중동국가의 독립 이후에도 이들의 결속을 저지
 - 중동지역은 이슬람이란 종교적 동질성과 아랍민족이란 인종적 동질성(이란 제외)을 가진 반면, 종족간 이질성으로 내부의 분열이 심각
- 중동 각국의 정치권력은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를 활용, 정권을 유지

□ 이라크전 발발 전까지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

- 이란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국 서부국경까지 이슬람 세력을 확대
- 이라크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 카스피해 주변국에 접근

-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주도의 걸프전을 지원한 이후 이슬람 극단세력과 갈등
 - 미 공군기지 건설 이후 반미세력 확대(오사마 빈 라덴 등)

이라크전 이후의 중동정세

□ 이라크전 이후 미국이 중동정세를 좌우

-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은 중동질서 재편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서쪽으로의 진출을 확대
 - 카스피해는 세계 최후의 미탐사·미개발 유전지대로 러시아, 중국, 미국은 물론 이란,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주변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전략적 지역
- EU는 아랍권과의 관계 개선 및 증진 노력을 강화
 - EU,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다른 입장을 표방하며 아랍국가를 포용
 - 이슬람원리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평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본격화

- 9·11 테러 이후 부시대통령의 공언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
 -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 다른 한편 중동의 민주화 정책을 제시하며 교육과 여성인권 신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난망

□ 중동 각국의 외교 안보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표출

- 중동 국가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친미 또는 반미 노선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이라크 접경 국가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정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은 아랍과 서방세계와의 중재역할을 시도
- 향후 중동질서는 이라크의 미래와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 양상에 따라 향방이 결정
-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라크는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간의 갈등이 분출되어 국가가 분열될 가능성
 -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왕정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정세불안 지속
 - 중동 지역의 최대 위협은 9·11 테러 및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국가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이에 따른 정세불안
 - 이란은 소수 시아파의 단결을 꾀함과 동시에 핵무장을 바탕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의 확대를 시도해 미국과 중동국가들과의 긴장을 촉발
 - 최근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없어야 한다”는 강경발언으로 중동 긴장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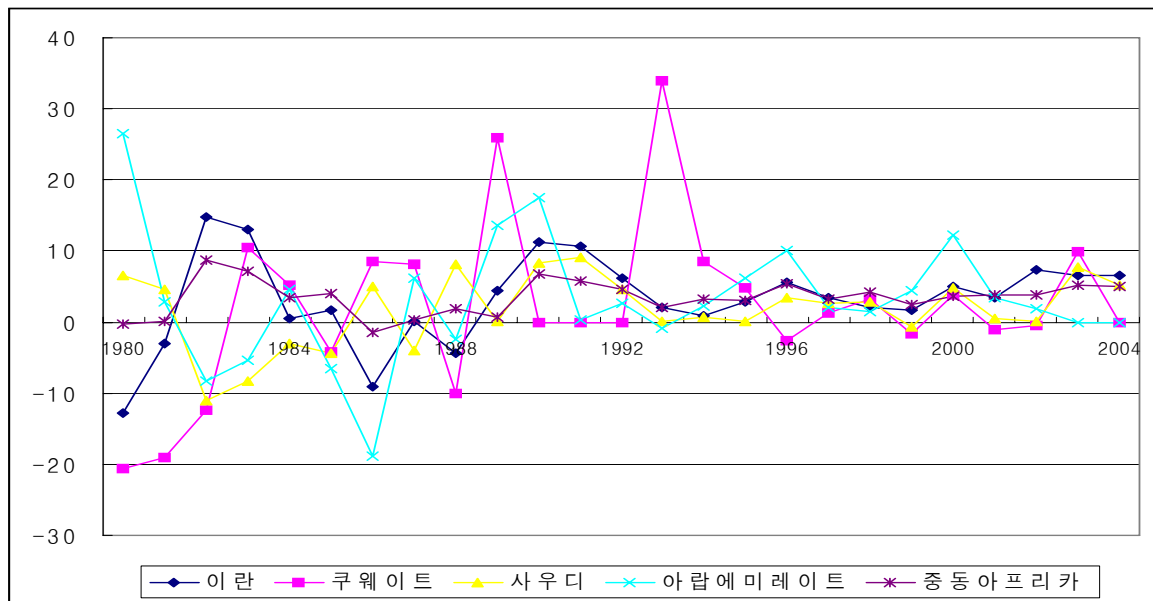
2. 중동경제 현황 및 전망

고성장세

- 80년대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 정체를 경험했던 중동 경제는 최근 유가 급등과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고성장세를 지속

- 특히 석유와 가스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높음
- 유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이 경제성장의 근간
 - 원유수출 확대 → 재정수입 증대 → 재정지출 확대 → 내수 활성화(소비와 투자) → 경제 성장률 상승

주요 중동 국가의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 세계은행(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재정수지 개선

- 재정수입 중 원유 수출에 따른 세수(revenue) 비중이 높은 산유국은 최근 원유 수출 급증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
 - 중동 국가의 재정 상황은 유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과거 1973년과 1979년의 오일머니 붐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유가 상승세 둔화로 재정 수입이 이후 3년 이내에 유가 상승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
 - 80년대 초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재정수지는 적자로 반전되고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평균 10%를 초과하는 등 재정 부실이 심화

- 재정불균형으로 낮은 국내 저축률, 고인플레이, 정부 부채와 외채의 증가, 민간투자 구축 등의 경제문제를 초래

주요국의 중앙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

	98-2002평균	2003	2004	2005	2006
바레인	-0.6	-2	2	7.9	10.5
쿠웨이트	21.1	19.1	25.6	36.5	41.5
오만	3.4	4.4	4.7	11.1	13.4
카타르	0.7	4.3	17.6	23	23.9
사우디	-4.3	1.2	9.6	17.5	20.7
UAE	1.3	13	18.3	24.6	28.4
이란	0.1	-0.1	-0.4	6.8	7.2

자료: IMF

□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

- 중동 산유국의 GDP대비 오일 관련 재정수입은 2002~2005년 사이 40%p가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4%p 증가에 그침(IMF 추정)
- 이 결과 중동 산유국(MENA)의 2004년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7.9%의 흑자를 기록(1990년대 평균 3.5% 적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오일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재정수입은 26억 달러가 증가
- 과거 1973년과 1979년의 오일 붐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급증한 재정수입은 이후 3년 이내 유가상승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
 - 1983년 이들 지역의 평균 재정수지 흑자는 GDP 대비 0.8%
- IMF 추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들 정부는 재정수입 증가분의 약 30%만을 재정지출로 활용
 - 1970년대의 경우 추가수입의 75% 이상을 지출

국내 저축 증가

- 소득의 증가와 민간·정부 부문의 지출 자제로 중동지역의 저축이 크게 증가
 - 중동 산유국의 저축률은 원유 수입국들보다 높은 수준
 -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저축률은 GDP 대비 40%를 상회
 - 중동 산유국은 2001~2004년에 유입된 오일머니의 약 40% 가량만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
 - 반면 1973년, 1979년 오일 붐의 경우, 오일머니의 각각 75%, 60%를 소비지출에 사용
 - 1980년 중동지역의 평균 경상수지 흑자는 36%까지 급증하였으나,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1983년 경상수지 흑자는 2% 수준으로 하락
 - 소비의 증가는 외국노동자의 중국산 수입품 소비와 고소득층의 유럽산 고가품 수입증가로 연결
 -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의 항만시설이 열악해 지역 내 소비증가가 세계 각국의 대중동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금번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는 수입의 증가로 연결
 - 외국노동자의 저가품 수요에 따른 중국산 제품 수입과 고소득층에 의한 유럽 고가품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

주요 중동국가 민간 소비 증가율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우디아라비아	10.8	0.61	0.41	n.a	n.a
이란	3.43	4.33	5.37	5.89	4.65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0	3.12	3.29	3.60	4.44

자료 : IMF

교역 증가세

-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은 편이나, 원유 수출이 늘고 소득 증대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로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
 - 중동국가의 총 교역 규모는 8,268억 달러로 세계 교역의 4.4%에 불과
 - 최근 중동국가 전체적으로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교역 증대가 현저
 - 중동 교역의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

주요 중동국가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수입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이란	24,219	22,090 (-10)	31,683 (30)	40,921 (23)	17,690	22,324 (21)	30,619 (27)	38,257 (20)
쿠웨이트	16,188	15,496 (-4)	18,715 (17)	25,513 (27)	7,732	8,804 (12)	11,414 (23)	12,983 (12)
오만	10,681	11,127 (4)	10,362 (-7)	12,840 (19)	5,797	6,005 (3)	6,572 (9)	7,704 (15)
카타르	10,869	10,977 (1)	13,380 (18)	18,546 (28)	3,758	4,051 (7)	4,897 (17)	6,052 (19)
사우디	68,672	66,086 (-4)	86,298 (23)	112,507 (23)	43,076	48,507 (11)	54,291 (11)	44,745 (-21)
아랍에미리트	39,759	38,971 (-2)	49,899 (22)	67,086 (26)	29,608	30,353 (2)	38,827 (22)	74,268 (48)
바레인	8,215	8,376 (2)	10,263 (18)	13,524 (24)	3,686	4,054 (9)	4,839 (16)	5,883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IMF

- 중동 국가의 교역구조는 역외 수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부문에 편중
 - 역외 수출입 비중이 90% 이상 차지
 - 수출은 주로 일, 한, 미, 중, EU 등 석유소비국을 대상으로, 수입은 주로 EU, 일, 미 등 선진공업국으로부터 이루어짐

중동국가의 주요 수출 대상국 (2004년)

	주요 수출 대상국(백만 달러)		
이란	일본(7,515)	중국(3,961)	이탈리아(2,453)
쿠웨이트	일본(5,228)	한국(3,484)	미국(3,157)
오만	중국(3,789)	한국(2,250)	일본(2,476)
카타르	일본(7,779)	한국(2,933)	싱가포르(1,695)
사우디아라비아	미국(20,457)	일본(16,803)	한국(10,727)
아랍에미리트	일본(16,658)	한국(6,627)	인도(3,592)
바레인	사우디(410)	미국(392)	아랍에미리트(2922)

자료 : IMF

- 「자원 수출·소비재 수입」형 무역구조가 고착
 - 석유, 가스, 석유화학 제품이 주력 수출품
 - 식음료, 기호품, 기계류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수송장비,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요 수입품목

중동 국가 주요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이란	원유, 석유화학제품, 카페인트	원자재, 식료품, 소비재
쿠웨이트	원유, 석유화학제품	산업설비 기계류, 자동차
오만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기계류, 자동차
카타르	원유 및 천연가스,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사우디	원유 및 정제유, 석유화학제품	기계, 전기전자, 식료품
아랍에미리트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 직물	가전제품, 기타소비재
바레인	원유,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원유, 기계, 화학

자료 : IMF

- 아랍에미리트는 예외적으로 비석유 부문을 집중 육성해 석유의존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시작

아랍에미리트의 비에너지 교역 비중(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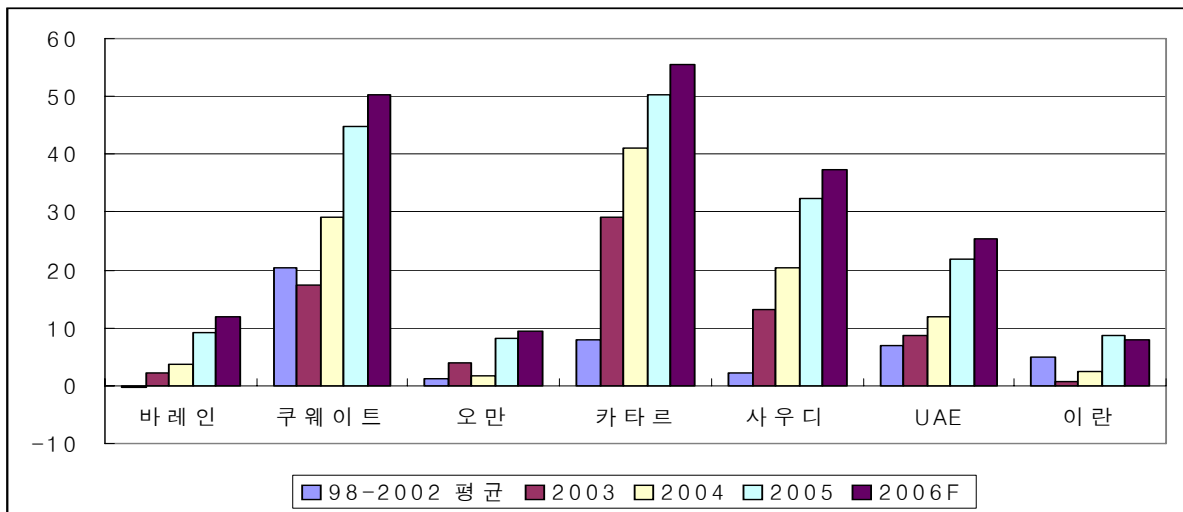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04년
전체 수출 대비 비중	비석유 수출	31.9	29.5	52.4	52.3
	석유 수출	68.1	70.5	47.6	47.7
GDP대비 비중	비석유 수출	29.4	17.5	36.6	36.7
	석유 수출	62.7	41.7	33.2	33.5

경상수지 흑자 확대

□ GCC 국가들의 2004년 경상수지 흑자 총액은 9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005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0%에 이른 것으로 추정

중동 주요국가의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 World Bank

□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2004년 2,598억 달러로 크게 증가

- 중동 산유국의 외환보유고는 2000년 GDP 대비 10.5%에서 2004년 23%로 증가
- 2004년 이들 국가의 총 외환보유고는 2,598억 달러

중동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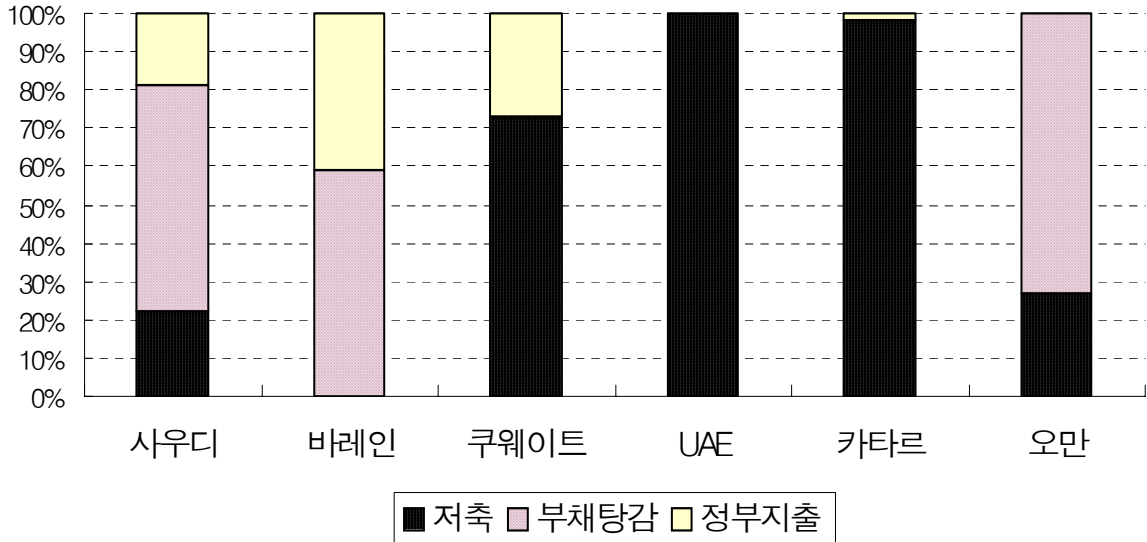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2000	195.9	135.2	70.8	23.8	11.6	15.7	121.8
2004	272.9	185.3	82.4	36.0	32.6	20.6	327.1

주: 카타르 및 오만의 2003년/2004년 외환보유고는 해당국가의 중앙은행 수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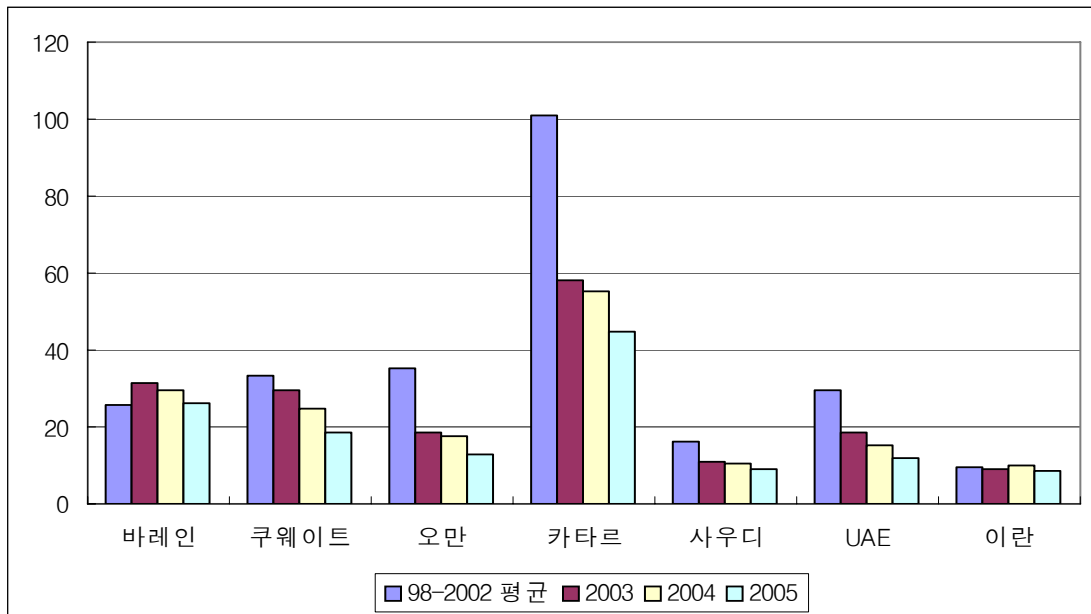
- 국별 차이는 있으나 오일머니가 대외 채무 변제에 사용되며 전반적으로 대외채무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

오일머니의 활용, 2003-2005 (% , 각 부문별 비중)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5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 변화



외국인 투자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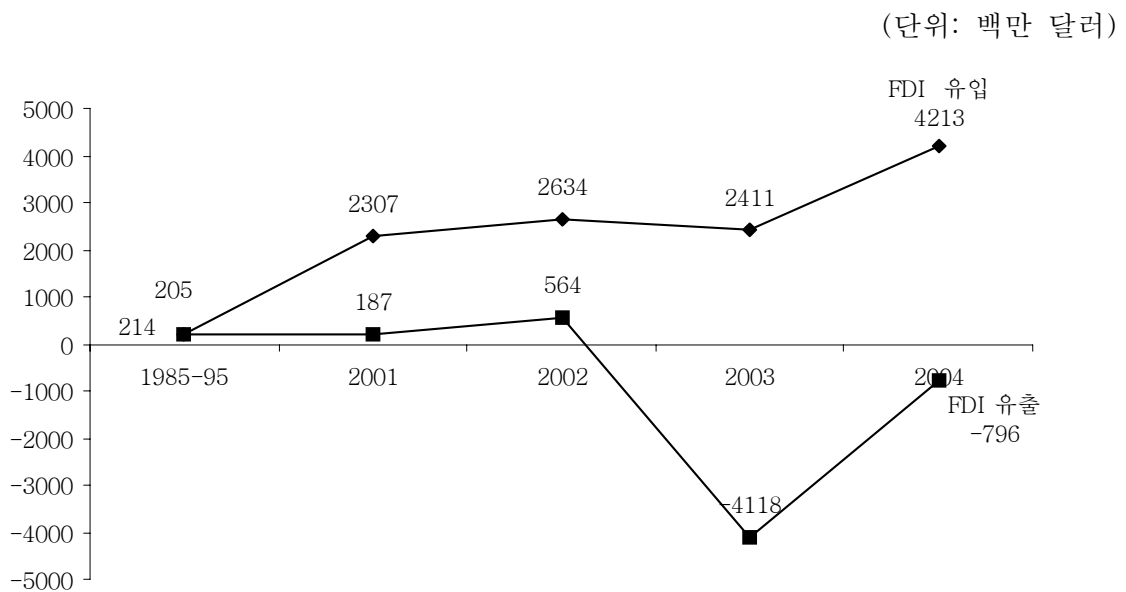
□ GCC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

-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의 1% 미만, 對개도국 직접투자 규모의 4%에 불과
-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1년(2,307백만 달러)에 비해 1.8배 증가한 4,213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
 - 풍부한 석유, 가스 매장량 외에 중개무역의 활성화로 인한 교역규모의 증대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

□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부분 석유관련 산업, 부동산 개발, 유통 등에 집중

- 대부분의 선진국은 원유 및 가스 개발에 집중
- 특히 이란의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이란의 천연가스 장기공급에 큰 관심을 갖고 장기계약 체결에 적극적

GCC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금융시장 활황세

- 오일머니 유입의 증가로 인한 자금의 유입이 역내로 몰리면서, 중동지역의 주식 및 채권시장은 연일 활황을 지속
 - SHUAA 지수(중동 12개국 자본시장 지수)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자본시장 지수는 2003년 1월~2004년 12월 사이 약 159%가 상승
 - 또한 GCC 6개국의 주식시장 주가총액은 2004년말 5,519억 달러(IMF 기준)
 - 특히 2000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 주가지수는 각각 6.7배와 10.6배로 급상승
 - 2002년 개장한 이슬람 채권시장의 규모는 3년간 3.3배 성장(발행시장 기준)

중동지역 주식시장 추이 (GCC+이란)

	규모(억 달러)		상장사 수(개)	
	2000	2004	2000	2004
사우디아라비아	174	4,730	75	73
아랍에미리트	1	182	27	53
카타르	2	64	22	30
오만	6	20	113	166
쿠웨이트	44	518	80	125
바레인	2	5	39	46
이란	41	167	307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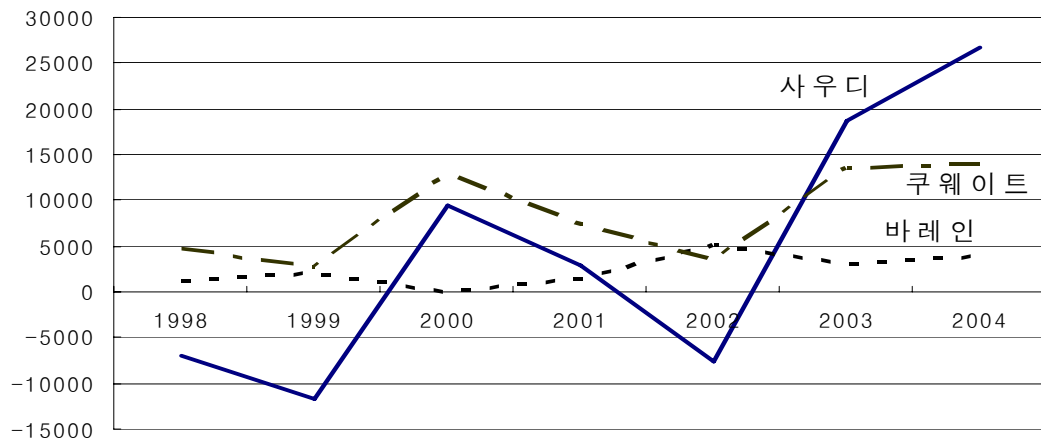
자료: IMF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 2000년 이후 유입된 오일머니의 약 35%는 해외투자로도 활용
 - 2000~04년 사이 중동지역의 해외투자는 약 2,100억 달러 규모

- 공공부문이 1,409억 달러의 해외투자 순유출을 기록하였고, 민간부문의 순유출도 609억 달러를 기록
-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투자 액수는 2005년 5월 약 1,095억 달러로 2003년 12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해외포트폴리오 투자추이 (1998~2004)



자료: IMF

- 정부관리 하의 석유기금이 안정화(Stabilization) 기금에서 투자목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정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참여가 확대
 - 과거 석유고갈 및 유가급등에 따른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은행예치 형태로 관리하던 자금의 운용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로 전환
 - 이는 지난 1980년대의 오일 붐과의 차이점으로, 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저축의 기능으로 운용하였던 기금의 역할이 수익창출까지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
 - 해외운용 자산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쿠웨이트 투자청(KIA)은 해외 각 지역별 전담 외국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강화

GCC국가들의 석유기금 현황

국가	기금 명	목적	설립연도	구성 원칙	회수 원칙	관리기관	기금 투자방식	규모 (04년말)
바레인	전략적 프로젝트를 위한 적립기금	안정화	2000	예산할당 후의 석유수입 잔액	임의로 예산에 편입	재무 및 국가경제부	해외	9.4억 달러 (GDP의 8.5%)
쿠웨이트	일반 적립기금	안정화/저축	1960	재정수지 흑자분을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투자	임의로 예산에 편입	쿠웨이트 투자청	국내 금융 및 부동산 시장	NA
	미래세대를 위한 적립기금	저축	1976	정부수입의 10%	국회 승인을 거쳐 임의로 예산에 편입	쿠웨이트 투자청	해외자본 시장	600~700억 달러
오만	일반적립기금	저축	1980	예산을 초과하는 석유수입	임의로 예산에 편입	재무부	해외	NA
	석유기금	석유 부문 투자	1993	매일 15,000 배럴의 시장금액	-	재무부	해외	NA
카타르	안정화 기금	안정화	2000	예산 할당 후 나머지 석유수입	예산에 대출	NA	NA	42.7억 달러 (GDP 15%)
	정부적립기금	저축	NA	NA	NA	NA	해외	NA
사우디아라비아	없음	-	-	-	-	-	-	-
아랍에미리트	없음	-	-	-	-	-	-	-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5

□ 민간 부문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

- 중동의 부유층(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총액은 2004년말 현재 약 1조 달러로, 이 중 상당부분이 해외자산에 투자

- 부유층의 상당수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자신의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여, 각국별 투자 배분을 결정하고 각국의 투자전문가에게 운용을 의뢰
-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증가로 인해 민·관의 투자 기관들은 해외투자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

□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

- 중동지역의 공식 루트를 통한 미국 자산(재무부 채권 등) 매입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동의 투자 자금이 영국 등 제 3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
 - 2005년 1~3분기 동안 영국의 미 재무부 채권 보유액은 80%가 증가한 1,824억 달러로, 이들 중 상당부분이 중동지역의 투자금액으로 추정됨
 - 이코노미스트誌는 유입된 오일머니의 2/3 이상이 미국 자산 매입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
- 공식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약 1,210억 달러 규모의 미 채권 및 주식을 보유(2004년 6월, 공식 외환보유고)
 -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자산 보유액은 약 635억 달러 수준
-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채권(10년 만기 재무부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이유가 오일머니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
 - CSFB의 추정에 의하면, 유가 10달러 상승 시 일일 미 재무부 채권 수요는 약 3억 달러 증가

□ 최근 들어 신흥국 등으로 투자대상이 다변화

-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IT 산업, 부동산, 종합단지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중동 지역의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도 해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일익

- 현재 중동지역에서 조성된 사모펀드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

-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IT 산업의 약진에 중동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
-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살 왕자는 한국 등 동아시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
- 또한 중동지역 원유수출의 62% 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아시아와의 경제교류 차원에서도 투자확대 필요성이 부각
- 예를 들어 중동 최대의 석유생산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社는 아시아를 주요 전략지역으로 지정
- 중국의 Exxon 등과도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높은 실업률과 청년실업 문제는 지속

□ 중동 국가는 공통적으로 높은 실업률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

-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인구비율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 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여 실업률은 계속 상승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0-2010년 GCC국가의 노동력 증가율은 타 개도국들에 비해 2배 높은 年 평균 4% 수준으로 예상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구 대국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높은 반면, 석유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 문제가 심각

- 소국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은 인구 규모가 작아 실업률이 낮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주요 중동국가 실업률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아랍에미리트	2.3	2.4	n.a	2.6	n.a
카타르	n.a	3.9	n.a	n.a	2.1
사우디아라비아	4.6	4.6	5.2	n.a	25
이란	13	12	12	n.a	11.2
쿠웨이트	0.8	0.8	1.1	2.1	2.1

자료: IMF

당분간 고성장세 지속

□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지속될 전망

-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인 원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당분간 고수준을 유지하여 고성장세를 뒷받침
 - 세계평균 성장률을 뛰어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아시아 등 고성장 개도국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단,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각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안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
 - 오일머니의 유입이 통화 팽창을 유발하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국가간 경제성과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경제적 자유와 개방, 정치체제의 민주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 및 후생 수준이 차별화
-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은 에너지 교역뿐만 아니라, 중계무역항으로서 전세계적인 교역 증가의 혜택
 -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항만시설 확충

-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적자, 점증하는 사회불안과 빈부격차, 근본주의자로부터의 공격, 왕권 약화 등 정치, 사회적 불안이 걸림돌
-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난망
- 이란의 핵문제가 갈등을 촉발하고 이라크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동지역의 장기전망은 불투명해질 우려

3. 중동경제의 위상 및 특징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역할 확대

□ 중동국가들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미미

- GCC와 이란의 인구는 1억 91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국민총생산은 8,859억 달러로 2.2%를 차지
-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2,909억 달러로 3.3%, 수입 1,899억 달러로 2.16%를 차지

중동국가의 위상(2004)

	인구		GDP		수출		수입	
	만명	비중(%)	억달러	비중(%)	억달러	비중(%)	억달러	비중(%)
GCC	3,398	0.5	7,245	1.8	2,500	2.8	1,516	1.72
GCC+이란	10,091	1.6	8,859	2.2	2,909	3.3	1,899	2.16
세계	634,513	100	408,878	100	89,184	100	87,941	100

자료: World Bank, EIU, IMF

□ 에너지 공급처로서 세계경제 성장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

- 전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의 약 70%가 중동지역에 매장(세계 전체 확인

- 매장량 1조 1,886억 배럴)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22%, 생산량의 13.1%를 차지
 - 이란은 확인매장량 1,325억 배럴의 중동 제2의 산유국으로 하루 420만 배럴의 생산능력을, 이라크는 1,115억 배럴의 확인매장량에 1일 200만 배럴 생산능력을 보유(정세가 안정될 경우 생산량 급증 예상)
- 새로운 유전의 탐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원유생산의 중심지로서 위상은 더욱 강화

중동 주요국의 원유매장량 및 생산량

국가	매장량(억 배럴)	점유율	생산량(만배럴/일)
사우디아라비아	2,627	22.1	950
이란	1,325	11.1	393
이라크	1,115	9.4	200
쿠웨이트	990	8.3	241
아랍에미리트	978	8.2	243
카타르	152	1.3	188
오만	56	0.5	91

자료: BP

- 중동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81조 입방미터로 전세계 매장량(179조 5,300억 입방미터)의 44.9%를 차지
- 생산량은 아직 매우 저조한 상태이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란은 세계 제2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함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박차
 - 터키와 1999~202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
 - 중국은 이란 남부의 다바란 천연가스전 개발에 참여, 25년간 2억 5천만 톤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잠정 합의(2005.12.20)
 - 인도도 이란과 25년간 매년 500만 톤의 LNG를 공급받기로 계약 체결

- 세계 3위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액화사업에 국력을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각각 4위, 5위로서 그 뒤를 잇고 있음

중동 주요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국가	매장량 (10억 입방미터)	세계 매장량 대비 비중 (%)
이란	27,500	15.3
카타르	25780	14.4
사우디 아라비아	6780	3.8
아랍에미리트	6060	3.4
쿠웨이트	1570	0.9
오만	1,000	0.6

자료: BP

비효율적인 경제 체질

□ 국가주도의 경제운용으로 효율성이 저조

-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이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
- 석유판매수입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
 - 석유수입의 상당부분이 공공부문의 고용, 직간접적인 보조금이나 경상이전, 공공 프로젝트의 발주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국민에게 배분
-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의 비중이 높은 구조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고, 필요 이상의 과잉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임금지출액이 GDP의 9~18%에 달함

중앙정부비중(2004)

(GDP 대비,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중앙정부비중	28.3	65.1	47.4	48.2	41.8	42.7	30.4

자료: IMF

- 최근 유가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
- 산유국의 재정상황은 석유와 관련된 교역조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간, 계급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불안도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

- 경제적 부가 왕가 및 귀족 등 기득권층에 집중
 - 석유 및 가스 관련 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업이 국유화되어 있어 민간부문이 취약
-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확대 요구 등에 직면하여 정치·사회적 불안이 확산
 - 권위주의 정권의 도덕성 상실,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조화 부족 등이 국민의 저항을 야기
 - 높은 인구증가율(80년대 4%대, 현재 2.3%)이 복지제도, 고용(15%대의 실업률), 도시기반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부담으로 작용
-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가운데 민족주의, 권위주의, 사회주의 등이 혼재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저조

□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고착화

- 석유 산업 및 관련 산업이 국내총생산, 수출, 정부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석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별로 13~58%로서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

- 총수출에서 석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5~86%에 이르며, 정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석유판매에 의존

석유산업 비중(2004)

(단위: %)

	석유산업비중	석유수출/총수출	석유판매수입/재정수입
바레인	13.1	53.8	76.3
쿠웨이트	41.6	85.5	79.3
오만	29.0	76.6	82.6
카타르	57.8	79.2	60.4
사우디	32.4	83.7	84.1
아랍에미리트	28.9	44.5	77.2
이란	11.5	72.8	61.8

자료: IMF

- 산업구조의 에너지산업 편중현상으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시 고성장, 하락시 경기침체를 반복하는 등 국제유가 동향에 민감
- 최근 석유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원유생산량 및 국제유가 수준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좌우
- 일례로 1998년 국제유가가 12.2달러/배럴로 급락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산유국들은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금융위기에 직면

□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도 취약점으로 작용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을 제외하고는 인구 소국으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
- 전체인구 중 외국인이 70~80%를 차지
 - 외국계 인력의 대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저임 노동자들이 차지
- 외국계 인력을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노력 추진 중
 - 외국인 인력 유입 억제와 동시에 내국인 중용정책을 추진
 - GCC 국가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합의

<부록2> 개별국가 개황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1. 국가개요

- ◇ 국토면적: 83,600 km²
- ◇ 수도: 아부다비
- ◇ 인구: 432만명(2004)
- ◇ 민족: 아랍족(인구의 70-80%는 인도, 파키스탄 등)
- ◇ 언어: 아랍어
- ◇ 종교: 회교 96%(수니파 80%, 시아파 16%)
- ◇ 정부형태: 연방대통령중심제
- ◇ 국가원수: Khalifa bin Zayed Al-Nahyan 대통령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억달러)	702	692	743	876	1,031
인당 GDP(달러)	21,634	18,850	20,231	23,853	28,079
경제성장률(%)	12.3	3.5	2.6	11.9	7.4
물가상승률(%)	1.3	2.7	2.9	3.1	4.4
인구(백만명)	3,247	3,488	3,754	4,041	4,320
수출(백만달러)	49,600	47,500	51,200	67,128	82,739
수입(백만달러)	30,800	33,500	36,720	45,818	54,190
경상수지(백만달러)	12,208	6,526	3,540	7,552	12,704
재정수지(GDP대비%)	2.8	-6.7	-7.5	-2.3	4.5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3,523	14,146	15,219	15,088	18,530
총외채(억달러)	182	194	167	165	158

자료: EIU country report, September 2005.

3. 국가전략

- ◇ 주요 국가전략 변화
 - 경제 자유화, 산업 다각화,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등
- ◇ 경제개발 계획 및 추진정책
 - 각 에미리트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비석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 및 재수출 확대, 식수, 전기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력 유입억제 정책을 추진
- ◇ 전략적 육성 부문
 - 관광산업(팜아일랜드, 두바이랜드 등), 미디어산업(두바이 미디어시티), 물류(두바이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대 등), 금융 및 상업 서비스(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제조업(알루미늄산업, 철강 산업, 시멘트산업 등) 등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2000~2004회계연도 기간 동안 오일 및 천연가스 수출로 약 770억 달러 유입
-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정부(연방 및 에미리트) 재정 흑자는 약 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75%), 도로건설, 전기, 급수 등 인프라 투자, 공항 및 항구 확충 프로젝트 등이 추진
 - 연방정부의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보유 해외자산은 약 2,250-2,750억 달러 수준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1. 국가개요

◇ 국토면적: 215만 km ²
◇ 수 도: 리야드(Riyadh)
◇ 인 구: 26.4백만
◇ 민 족: 아랍족 (베드윈 27%, 정착민 73%)
◇ 언 어: 아랍어
◇ 종 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 독 립 일: 1932. 9. 23
◇ 정부형태: 전제군주제 (정교일치)
◇ 국가원수: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
◇ 입 법 부: 없음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10억달러)	188.7	183.3	188.5	214.6	250.6
인당 GDP(달러)	9204	8294	8303	9210	10441
경제성장률(%)	4.9	0.5	0.1	7.7	5.2
물가상승률(%)	-1.1	-1.1	0.2	0.6	0.5
인구(백만명)	20.5	22.1	22.7	23.3	24.0
수출(백만달러)	77584	67973	72464	93244	126,063
수입(백만달러)	27741	28607	29624	33868	40841
경상수지(백만달러)	14335	9354	11872	28049	51488
재정수지(GDP대비%)	3.2	-3.8	-2.9	4.4	11.3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9,586	17,596	20610	22620	27291
총외채(억달러)	361	353	295	313	336

자료: EIU country report, November 2005.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3. 국가전략

- ◇ 주요 국가전략 변화
 - 원유수입을 주식시장에 투자
- ◇ 경제개발 계획 및 추진정책
 - 광산투자에 대한 새로운 법 SAGIA 설립
 - Saudi Landbridge 프로젝트 착수 (화물운송, 여객)
: 1,400 km 고속철도 건설 (Jeddah~Riyadh~Dammam)
- ◇ 전략적 육성 부문
 -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HRDF(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 Saudiisation: 내국인 고용 활성화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5월 외화자산 1095억달러 기록
-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과거 소비패턴에서 탈피, 주식시장에 투자
- ◇ 안정화 기금 운영 현황
 - 2010년까지 석유수출자금 가운데, 1000억달러 국영기업인 Aramco의 시설 확장, 공무원 봉급인상 15%, 주택과 교육부문에 지출예정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1. 국가개요

◇ 국토면적: 17,818 km ²
◇ 수 도: Kuwait City
◇ 인 구: 257만 명 (2005)
◇ 민 족: 쿠웨이트인(37%), 외국인(63%)
◇ 언 어: 아랍어
◇ 종 교: 회교(85%), 힌두교 등(15%)
◇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 국가원수: Sheikh Jaber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77년 즉위)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억달러)	370	341	352	416	489
인당 GDP(달러)	16,440	14,481	14,414	16,567	18,148
경제성장률(%)	1.9	0.7	0.5	9.7	7.2
물가상승률(%)	1.8	1.7	1.4	1.2	1.8
인구(백만명)	2.217	2.309	2.420	2.484	2.645
수출(백만달러)	19,500	16,200	15,400	21,000	27,700
수입(백만달러)	6,500	70,000	8,100	9,700	11,100
경상수지(백만달러)	14,700	8,300	4,200	7,600	12,400
재정수지(GDP대비%)	40.8	17.5	21.3	19.1	22.1
외환보유고(백만달러)	7,082.4	9,897.3	9,208.1	7,577.0	8,241.9
총외채(억달러)	100	111	124	124	131

자료: EIU, IMF

3. 국가전략

- ◇ 주요 국가전략 변화
 - 정부 재정수입의 다변화, 향후 원유 고갈 이후를 대비한 산업구조 조정
- ◇ 경제개발 계획 및 추진정책
 - 매년 2.1%의 실질경제성장률
 - 공공부문의 경제발전 기여도 축소 (2002년 77.1% -> 2006년 73.9%)
 - 비석유부문 수입확대 (2002년 16.7억 달러 -> 43.1억 달러)
 - 특정 정부수요 산업의 민영화
 - 양질의 교육, 과학연구 활동에의 투자 증대 및 동 개발
- ◇ 전략적 육성 부문
 - 석유(550억 달러), 가스(100억 달러), 석유화학(100억 달러), IT부문, 사회간접자본(150억 달러), 주택(50억 달러), 관광(200억 달러) 등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2000~2003회계연도 기간 동안 오일 및 천연가스 수출로 약 731억 달러 유입
-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GDP대비 국내총투자는 2004년 11.2% 증가했으며 각종 플랜트 건설 및 재원 조달, IT산업 프로젝트, 중계무역기지화, 관광산업 프로젝트 등이 추진
 - 해외포트폴리오 투자는 2003년 1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 ◇ 안정화 기금 운영 현황
 - 1967년 'Reserve Fund for Future Generations(RFFG)' 설립, 그 규모가 약 700-1,000억 달러
 - 1953년 쿠웨이트 투자청의 런던 지부 사무소인 Kuwait Investment Office 설립되었으며 RFFG를 해외투자로 운영

오만 이슬람 왕국 (The sultanate of Oman)

1. 국가개요

◇ 국토면적: 30만9500 km ² (한반도의 1.4배)
◇ 수 도: 무스카트(6십6만 명)
◇ 인 구: 2백9십만 명 (2004)
◇ 민 족: 아랍인(75%이상)외 인도인, 발루치족 노동자
◇ 언 어: 아랍어(영어도 통용)
◇ 종 교: 이슬람교(이바디파)
◇ 독 립 일: 1650년 11월18일(포르투갈로부터) 1944년 (영국으로부터)
◇ 정부형태: 군주제 (절대왕정)
◇ 국가원수: Sultan qaboos bin said Al said(1970,7월 취임)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억달러)	198	199	203	217	248
인당 GDP(달러)	8,270	8,050	8,000	8,260	9,175
경제성장률(%)	5.5	7.5	2.3	1.9	7.2
물가상승률(%)	-1.2	-1.1	-0.6	-0.4	0.3
인구(백만명)	2.40	2.48	2.54	2.61	2.71
수출(백만달러)	11,318	11,074	11,172	11,670	13,345
수입(백만달러)	4,593	5,310	5,636	6,086	7,873
경상수지(백만달러)	3,262	1,884	1,367	880	443
재정수지(GDP대비%)	-4.8	-4.3	0.9	1.4	2.4
외환보유고(백만달러)	2,460	2,445	3,174	3,594	3,598
총외채(억달러)	62.7	60.2	46.4	46.8	50.2

자료: EIU country Risk Service November, 2005. IMF

3. 국가전략

◇ 주요 국가전략 변화

- 경제의 석유부문 위존 탈피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민간투자 확충, 기간산업 개발 및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등 제조부분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권장

◇ 경제개발 계획 및 추진정책

- 1995년 Post Oil시대 대비를 위한 ‘2020 경제비전’ 발표
민간기업 육성 및 공단 개발 등을 통해 공업분야,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01~2005)
오만주의(Omanisation), 산업다각화(Diversification), 민영화(Privatisation)

◇ 전략적 육성 부문

- 천연가스 산업: 석유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자원의 중요성 강조, 발굴 탐사 진행 (카타르 돌핀 프로젝트 참가)
- 산업다각화를 위해 제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 관광산업육성, 해외투자 유치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LNG, 알루미늄, 비료, 석유화학)등으로 비석유부문의 GDP 비중 확대 추진, Salalah 자유무역지대 건설, Sohar 지역 프로젝트 추진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2004년 오일수입 약 107억만 달러 (2001년 약 92억만 달러, 2002년 약 88억만 달러, 2003년 약 93억만 달러-누계: 약 380억만 달러)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과거 군사력 강화->민영화, 산업다각화, 오만화 중점의 경제개발 정책 (고용할당제 의무화, 제조업 2020년, GDP의 15%, 비 석유부분 80% 까지 확대 목표 설정의 ‘2020 경제비전’, OmanTel 매각, Rusail, Sohar, Raysut, Nizwa 등 공업단지 개발)

◇ 안정화 기금 운영 현황

- 재무부산하 일반적립기금(1980), 석유기금(1993) 운영

카타르 (State of Qatar)

1. 국가개요

◇ 국토면적: 11,437 km ²
◇ 수 도: 도하(Doha) (43.2만명)
◇ 인 구: 86.3만명 (2005년 기준)
◇ 민 족: 아랍인 40%, 파키스탄인 18%, 인도인 18%, 이란인 10%, 기타 14% (2004년)
◇ 언 어: 아랍어
◇ 종 교: 이슬람교 (95%) (수니파)
◇ 독 립 일: 1971년 9월 3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이슬람교 왕정
◇ 국가원수: 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The Emir) - 취임 : 1995년 6월, 임기 : 세습
◇ 의회형태: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 없음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백만달러)	17,760	17,741	19,707	20,426	28,451
인당 GDP(달러)	29,115	28,847	31,888	32,116	38,292
경제성장률(%)	-	-	11.1	19.8	20.5
물가상승률(%)	1.7	1.4	0.3	2.3	6.8
인구(천명)	610	615	618	636	743
수출(백만달러)	11,594	10,706	10,771	13,382	18,685
수입(백만달러)	3,252	3,758	22,036	4,359	5,410
경상수지(백만달러)	-	4,152	3,824	5,754	7,552
재정수지(GDP대비%)	7.2	3.5	8.0	5.3	13.8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158	1,313	1,567	2,944	3,396
총외채(억달러)	-	-	-	-	-

자료: IMF, Qatar Central Bank

3. 국가전략

- ◇ 주요 국가전략 변화
 - 카타르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개발정책을 시행
 -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도약
- ◇ 경제개발 계획 및 추진정책
 - 앞으로 20년 안에 국가를 완전 개조한다는 목표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 시장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는 제한적으로 단행
- ◇ 전략적 육성 부문
 - 천연가스(LNG) 생산, 석유화학산업, 관광산업 등을 적극 육성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2000~2004년 동안 오일 및 천연가스 수출로 약 580억 달러 유입
-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향후 5년간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총 1,0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2010년까지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되기 위해 LNG 생산능력 확충(250억 달러)
 - 에너지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투자(20억 달러)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도하국제공항 확장(50억 달러), North Beach Development, Pearl of the Gulf 등 휴양지 개발(170억 달러) 추진
- ◇ 안정화 기금 운영 현황
 -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카타르경제의 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말 현재 약 43억 달러에 이르는 안정화기금 적립

바레인 (Baharain)

1. 국가개요

◇ 국토면적: 676 km ²
◇ 수 도: 마나마(Manama)
◇ 인 구: 67만 2000명 (2002년)
◇ 민 족: 바레인인 68%, 아시아 25%, 아랍인 4%, 유럽인 2%, 기타 1%
◇ 언 어: 아랍어(Arabic 80%, Farsi 12%)
◇ 종 교: 이슬람교(시아파) 50% 이슬람교(수니파) 40% 기독교 7% 힌두교 2% 기타 1%
◇ 독 립 일: 1971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이슬람교 왕정
◇ 국가원수: Sheikh Isa bin Salman Al-Khalifa(The Emir) - 취임 : 1999년, 임기 : 세습
◇ 의회형태: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 없음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10억 달러)	8.0	7.9	8.4	9.6	10.2
인당 GDP(달러)	-	-	-	-	-
경제성장률(%)	5.3	4.6	5.2	6.8	5.3
물가상승률(%)	-0.7	-1.2	-0.5	1.6	4.9
인구(백만)	0.7	0.7	0.7	0.7	0.7
수출(백만달러)	6,242.6	5,657.2	5,887.3	6,720.9	7,620.7
수입(백만달러)	4,393.9	4,047.1	4,697.3	5,319.2	6,135.4
경상수지(백만달러)	830.1	227.4	-50.3	200.9	415.2
재정수지(GDP대비%)	4.7	-2.3	-	-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564.1	1,684.0	1,725.8	1,778.4	1,940.5
총외채(십억달러)	2.8	3.0	3.8	4.6	6.1

자료: IMF, EIU

3. 국가전략

◇ 주요 국가전략

- 바레인은 2010년 원유고갈에 대비하여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개발정책을 시행 중
- 특히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역할 강화에 주력

◇ 중동 금융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이미 1970년대 이후 중동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
- 두바이, 카타르 등 신흥 금융 강국들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자유화하고, 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의 입지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 FTA 체결을 통해 무역 확대를 추구

- 사우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미국과 FTA를 체결

◇ 전략적 육성 부문

- 금융, 관광, 알루미늄 제련 등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2000~2004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 총액은 16억 달러 규모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국제금융센터인 “BFH(Bahrain Financial Harbour)”의 설립 추진 (2007년 Phase I-Financial Mall, Dual Towers, Harbour House 등 포함-완공 예정)
- 중동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을 목표로 생산 증산을 위해 투자 확대
- 전기, 수도 관련 프로젝트에 약 3억 달러 투자

◇ 안정화 기금 운영 현황

- 2000년에 “전략적 프로젝트를 위한 적립기금(Reserve Fund for Strategic Projects)”를 설립하여 2004년 말까지 9.4억 달러를 적립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1. 국가개요

◇ 국토면적: 1,636천 km(한반도의 7.5배)
◇ 수 도: Tehran(1천2백만 명)
◇ 인 구: 6천 9백만명 (2004)
◇ 민 족: 이란족(51%), 터키계(17%), 쿠르드계(9%), 아랍인(2%)
◇ 언 어: 페르시아어(Farsi)
◇ 종 교: 이슬람교(시아파)
◇ 독 립 일: 1979. 4. 1 이슬람공화국 성립
◇ 정부형태: 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중심제)
◇ 국가원수: 대통령(Mohmoud Ahmadinejad, 임기 4년), 최고지도자(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종신제)
◇ 의회형태: 단원제(290석, 임기4년)

2. 거시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억달러)	719	848	1,163	1,338	1,614
인당 GDP(달러)	1,083	1,270	1,720	1,960	2,350
경제성장률(%)	5.1	3.7	7.5	6.7	5.6
물가상승률(%)	14.4	11.3	14.3	16.5	14.8
인구(백만명)	66.4	67.0	67.6	68.2	69.0
수출(백만달러)	28,345	23,904	28,237	33,991	44,403
수입(백만달러)	15,207	18,129	22,036	29,561	36,639
경상수지(백만달러)	12,634	5,985	3,585	816	3,989
재정수지(GDP대비%)	8.7	1.8	-2.4	-0.2	-2.1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2,176	16,616	21,409	24,427	32,709
총외채(억달러)	80	75	92	121	157

자료: EIU country report, September 2005. (재정수지는 IMF 자료)

3. 국가전략

◇ 주요 국가전략 변화

-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0-2004)에서 처음으로 대외지향 (Outward Orientation) 정책 채택
- 부의 평등한 분배 강조(2005년 보수파 정권 집권)

◇ 경제개발 계획 및 추진정책

- 고용창출, 민영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 대외지향정책,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분권화 추진
- 오일머니의 유입과 보수파 정권의 집권으로 대외개방 및 민영화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

◇ 전략적 육성 부문

- 원유 생산시설 확충 및 천연가스 액화 사업 활성화
- 수입대체산업, 석유화학, 석유·가스 개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4. 오일머니 유입 및 활용

◇ 오일머니 유입 규모

- 2000/01~2003/04(회계연도) 동안 오일 및 천연가스 수출로 약 940억 달러 유입, 2004/05년 368억 달러 유입

◇ 오일머니 활용 변화

- 외환보유고 증가, 외채상환, 오일안정화기금 조성
- 석유·가스 개발 확대, 제조업 투자 증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 안정화 기금 운영 현황

- 2000년 'Oil Stabilization Fund' 설립, 2001-05년까지 총300억 달러 조성, 210억 달러 지출, 90억 보유
- 총지출 210억 달러 중 공공부문 지출이 172억 달러

참고문헌

- 국제금융센터, “오일머니 운용대상에서 달러자산 비중 축소추세 지속”, 2005
- 대한무역투자공사, “중동 오일머니를 잡아라”, 2005
- 박복영,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지역연구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재룡, 전영옥, 송영필, 방태섭, “두바이(Dubai),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 CEO Information(499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외교통상부, 『중동진출가이드』, 2004
- 홍성민, “오만 정치·경제적 상황과 석유산업,” 『석유』. 가을호,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 한국기술연구원, “중동지역 산업설비 확충계획과 수주증대 방안: GCC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 Central Bank of Iran, *Annual Review(2004/05)*, Central Bank of Islamic Republic of Iran, 2005
- Central Bank of Oman, *Annual Report*, 2004
- Central Bank of Oman, *Quartly Statistical Bulletin*, 각호
- Central Bank of Oman,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각호
- Country Watch, "Kuwait Review", Country Watch, 2005
- CSIS, "The Saudi and Gulf Stock Markets", 2005.10
- EDB, "Removing Policy Barriers : From red tape to red carpet", Feb. 2005
- EIA, "OPEC Revenues: Country details", June. 2005
- EIU, "Country Profile 2005, Kuwai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Risk Service, Kuwait",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Profile 2005, United Arab Emirate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Risk Service, United Arab Emirates ",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Profile 2005, Bahrai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Risk Service, Bahrain",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Profile 2005, Saudi Arabia",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Risk Service, Saudi Arabia",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Profile 2005, Qatar",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Risk Service, Qatar",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_____, "Country Report, Islamic Republic of Iran", Economic Intelligence Unit, December 2005
- _____, "Country Risk Service, Oman", Economic Intelligence Unit, November, 2005
- Global Insight, *Monthly Outlook*, Kuwait, Global Insight, Sep. 2004
- Gulf Investment Corpora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4, Kuwait, 2005
- IMF, "IMF Country Report No. 04/307, Islamic Republic of Ir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ep. 2004.
- _____, "Kuwait: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ly 2005
- _____, "UAE: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ug. 2005
- _____, "Staff Report for 2005 Article IV Consultation, Kuwai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5
- _____, "Regional Economic Outlook", Sep. 2005
- _____, "GCC Countries: From oil dependence to diversification", 2003
- IAIGC,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FDI in the Gulf Region", The Inter 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Jan. 2003
- _____, "Investment Climate in the Arab Countries, Executive Summary", The Inter 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2004
- Jensen, Jesper and Tarr, David, "Trade, Foreign Exchange, and Energy Policie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form Agenda, Economic

- Implications, and Impact on the Poor", World Bank, January 2002
- Krafarin Bank, "Survey of the Iranian Economy In 1383(2004/05)", Karafarin Bank, March 2005
- Mustapha Kamel Nabli and Mare-Ange Veganzones-Varoudakis, "Reforms and Growth in MENA Countries: New Empirical Evidence", World Bank, May 2004
- MEED, "Trends in the GCC", Middle East Economic Digest. 2005
- MEED, "Oman Breaks New Ground," Oman Ministry of Information, August 2001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Sultanate of Oman, Facts and Figures: Special Issue on Development Efforts 1970-2005",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man, 2005
- NBK,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Kuwait, National Bank of Kuwait, Oct. 2004
- ____,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Kuwait, National Bank of Kuwait, Sep. 2002
- ____, "Doing Business in Kuwait", National Bank of Kuwait, Sep. 2003
- OCIPED, STATISTICAL YEAR BOOK 2004
- Peter Rudolf, Die "Strategie der Freiheit " im N모두 und Mittleren Osten, SWP-Aktuell 53, Dec. 2003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05
- World Bank, "Reform and Elusive Growth in the Middle-East - What has happened in the 1990s?", Working paper series, No. 25, June 2002
- World Bank,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Oil Booms and Revenue Management", World Bank, 2005
- WTO, Trade Policy Review : Qatar, 2005

신문 및 잡지

- "Abu Dhabi, Kuwait May Invest \$1 Bln in Chinese Bank", Bloomberg(Nov. 9, 2005)

"Recycling the Petrodollars", The Economist(Nov. 12, 2005)
"Oil exporters learn to favour investment", Financial Times(Oct. 4, 2005)
"FT Series : Arab Oil", Financial Times
"Could Petrodollar history repeat?", IHT(Sep. 20, 2005)
"Qatar's Pearl ready to shine", ITP Construction(Dec. 8, 2005)
"Kuwait Fund Selling Last of UK Portfolio", Times(May 11, 2004)
"Kuwait Investment Office selling last UK company", Times(Jan. 22, 2004)
"Kuwait Unveils New Tourism Era", Ameinfo(May 2005)

웹사이트

<http://www.alahli.com> <The National Commercial Bank, Saudi Arabia>
<http://www.samba.com.sa> <Samba Financial Group>
<http://www.meed.com> <Middle East Economic Digest>
<http://www.sama.gov.s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http://www.eiu.com> <Economic Intelligence Unit>
<http://www.kia.gov.kw> <Kuwait Investment Authority, online service>
<http://www.mof.gov.kw> <Kuwait Ministry of Finance, online service>
<http://nbk.com> <National Bank of Kuwait, online service>
<http://segero.hufs.ac.kr/>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http://ociped.com/uselinks.asp> <오만투자증진수출개발센터>
<http://www.cbo-oman.org/> <오만중앙은행>
<http://www.moneoman.gov.om> <오만 국가경제부>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http://www.mofat.go.kr> <외교통산부. 국가별개황>
<http://www.hopia.net/kime> <중동경제연구소>
<http://www.eiu.com> <Economic Intelligence Unit>